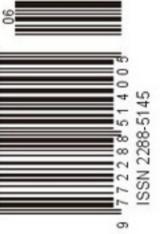


19세미만 구독불가

섹시 누드와 야한 스토리가 함께 담긴 완전 성인용 이야기 화보집

가격 8,900원

NUDE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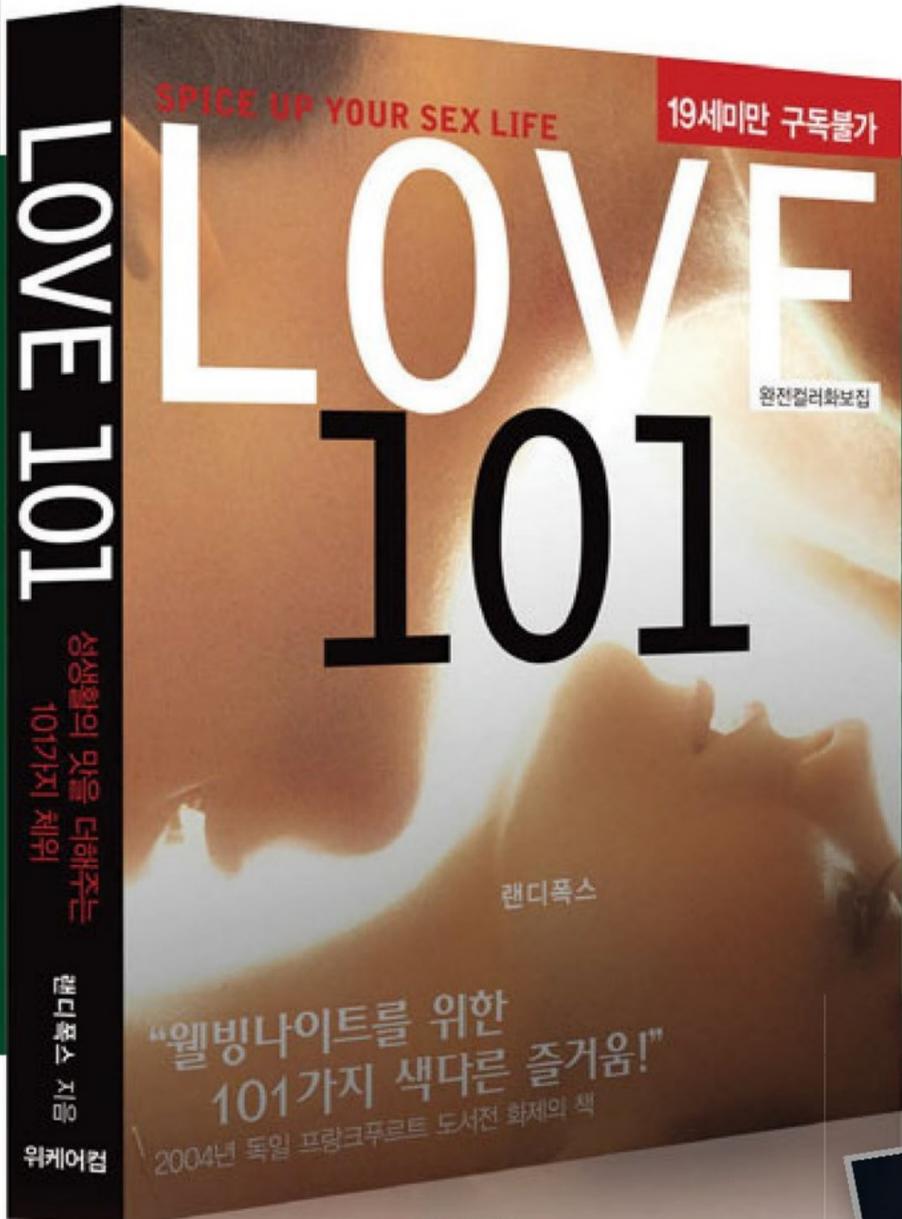


No.101
누드스토리
2022 06



웰빙나이트를 위한 101가지 색다른 즐거움!

LOVE 101



**매일 골라 즐기는 101가지 체위
새로운 느낌과 절정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기쁨까지...
지금, 당신의 침실지수가 올라갑니다**

- ▶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101가지 다채로운 체위의 향연
- ▶ 200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화제의 책
- ▶ 미국의 여성 성연구가 랜디폭스가 인도를 돌며 20년이상의 연구로 만든 고감도 섹스 길라잡이
- ▶ 101가지 체위를 기록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체크리스트” 포함
- ▶ 실제 남녀가 함께 펼치는 생생한 올칼라 화보집
- ▶ “슬라이드 폰”, “기울어진 시소”, “전기 청소기” 등 재미있는 이름의 환상의 체위
- ▶ 양장본, 깔끔한 편집으로 신혼부부, 결혼기념일 등을 위한 센스 있는 선물

성생활의 맛을 더해주는
101가지 체위
랜디폭스 지음
위케어컴
하체어컴
음지 소위어컴

**전국서점, 인터넷서점, 편의점
지하철 절찬 판매중!!!**

구입 및 통신판매 문의

전화(02)3472-1950 팩스 (02)379-4535
입금계좌: 국민은행 367201-04-097911, 농협 351-0618-2965-63
예금주: 문동기
책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예쁘게 포장하여 보내드립니다.

가격 19,800원

발행처: 위케어컴





도서명 : 유니드 임팩트화보집
 출판사 : 임팩트크루
 저자 : 임팩트크루
 크기 : 225×265
 쪽수 : 144page
 출간일 : 2019년 10월 1일
 바코드 : 977267207900410
 대상/타겟 : 20-40대 남성

정가 22,000원

MetroCard
 Vending Machines
 At This Station.



유니드 임팩트화보집

구입 및 통신판매 문의
 전화(02)3472-1950 팩스 (02)379-4535

입금계좌: 국민은행 367201-04-097911, 농협 351-0618-2965-63 예금주: 문동기
 책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예쁘게 포장하여 보내드립니다.

CONTENTS

JUNE 2022

하숙집 아줌마와의 은밀한 밀회

그녀는 내가 잠잠해질 때까지 내 옆에서 계속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몸에서 아기 냄새 같기도 하고 우유 냄새 같기도 한 좋은 냄새가 났다. 평소의 조신했던 모습과는 달리 슬립 차림으로 흐트러진 그녀를 보고 있자니 느닷없는 성욕이 끓어올랐다. 나는 이대로 더 있다간 큰일이라도 낼 것만 같아서 방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다.

7

손님 가리는 노래방 도우미

21

도우미가 손님을 고른다고? 왠지 모를 호기심이 동했다. 나 정도면 그 여자가 튕기지 않을 거란 자신감도 있었고, 맘에 드는 남자랑은 엄청 진하게 논다는 점도 구미가 당겼다. 그녀를 불렀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외형을 지닌 여자였다. 그날 난 세 시간을 연장해가며 꽤나 진하게 놀았다. 섹스도 없었고 아주 진한 스킨십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불감증 깨뜨린 마성의 남자

물론 타고난 하드웨어가 훌륭하긴 했다. 서양인처럼 거대한 페니스가 그랬고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강인한 체력 역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로 인해 유선이 오르가즘을 느낀 건 아니었다. 그런 것이라면 다른 남자에게도 느낄 기회가 있었으니까. 유선은 그의 남자다움에 매료된 것이었다.

35

남자들이 마사지 받는 이유

49

한 술 더 떠 그는 가슴을 두 손으로 비비면서 마사지를 해왔다. 참을 수 없는 쾌감이 나를 덮쳐왔다. 어느새 숨이 가빠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하반신 쪽에 몸을 지탱하고 있던 그에게서 익숙한 딱딱함이 느껴졌다. 설마 했지만 역시나였다. 그건 틀림없이 남자의 물건이 전해주는 질감이었으니까. 이 남자도 내 상태에 반응한 것이었다.

매니저가 직접 쓴 키스방의 남자, 그리고 여자 이야기

키스방,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돈이 필요한 여자와
사랑이 필요한 남자이야기...**

노래방, 룸싸롱, 단란주점, 오피스텔 등 대한민국 유흥문화는 많다. 그 중 키스방은 국내에 생긴 지 몇 년 안 되는 곳이다. 대학생이나 직장을 그만 둔 20대들이 보통 이 곳에서 일한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을 만난다. 20대부터 60대까지. 그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다양하고 남자들의 행태도 다양하다. 그 곳에서 나오는 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 이 곳에서 보는 매니저의 일상

10여 년 전부터 어느 순간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키스방은 한때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체기에 접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아직 전국적으로 보면 500여개 이상이다. 그곳에 몸을 담은 여성들의 수는 어림잡아도 수만에 달할 게 분명하다. 이 책은 흔히 말하는 매니저들의 일상을 담았다.

■ 키스방을 찾는 남성들의 성 풍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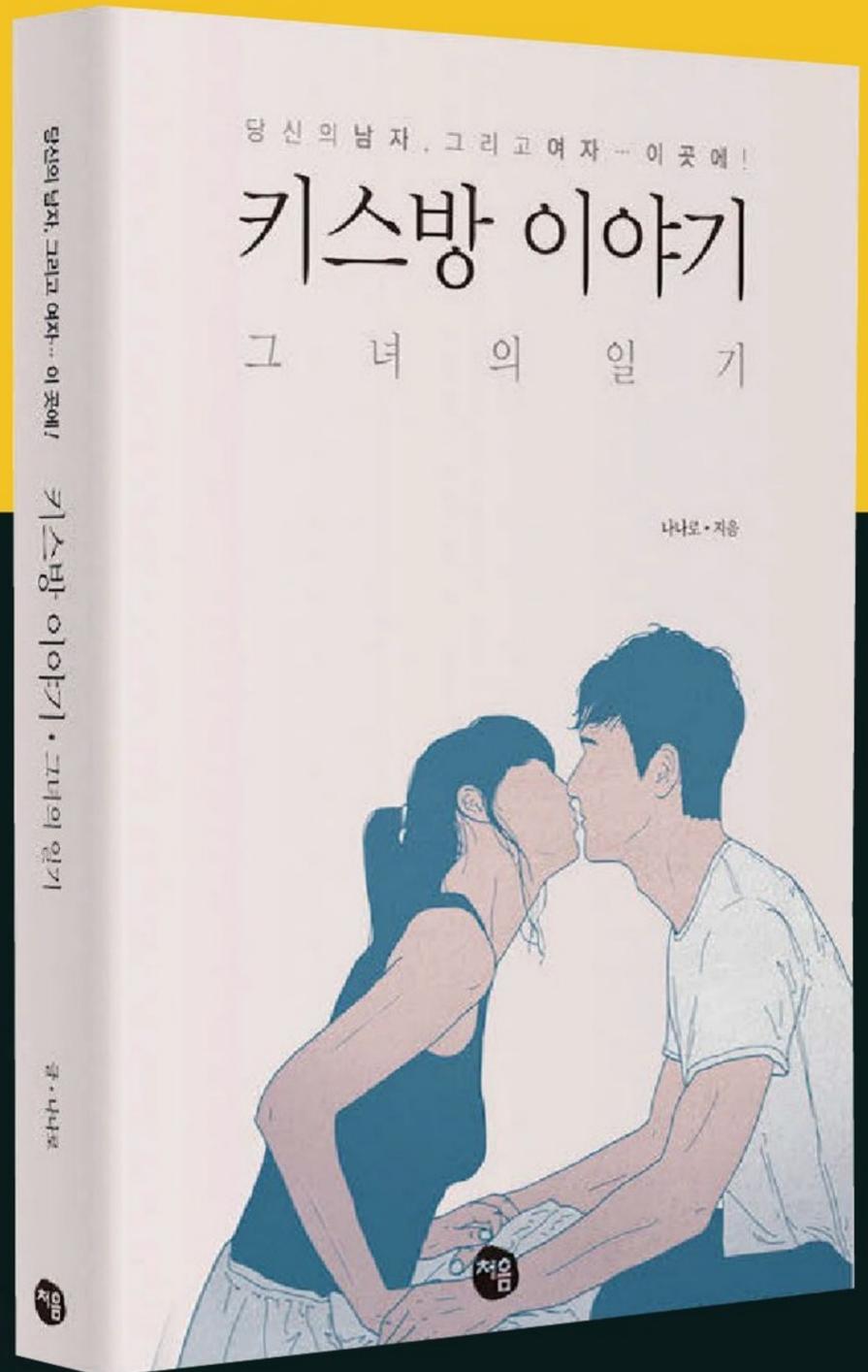
남성들 중에는 키스방 충성 고객이 꽤 있다. 남성들이 이 곳을 드나들면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고 수위에 대한 타협?도 생긴다. 키스방 매니저 입장에서는 손님이 늘어나고 돈이 되면, 수위 경쟁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키스방에서 남성들은 매니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볼 수 있다.

■ 이 곳에서 상처받는 매니저들

키스방에서 단지 키스만 하겠거니 하고 돈 좀 벌겠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입문한 여성들이 꽤 있다. 단 하루, 혹은 며칠 만에 그만 두는 이유는 험한 꼴을 수시로 겪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 일로 상처받는 여성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 젊은 여성들, 남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 책을 내기로 한데는 쉽게? 돈 벌기 위해 이 곳에서 일하는 많은 순진한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있다. 제대로 각오를 한 여성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런 상처를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곳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남성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다.



지은이 나나로 | 퍼낸곳 처음출판사 | 판형 136×194mm 쪽수 180
분야 에세이 | 발행일 2019년 11월 5일 | ISBN 979-11-965357-0-4 03300

정가 10,000원

구입 및 통신판매 문의
전화(02)3472-1950 팩스 (02)379-4535

입금계좌: 국민은행 367201-04-097911, 농협 351-0618-2965-63 예금주: 문동기
책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예쁘게 포장하여 보내드립니다.

정유나 임팩트화보집

도서명 : 정유나 임팩트화보집
출판사 : 임팩트크루
저자 : 임팩트크루
크기 : 225×265
쪽수 : 144page
출간일 : 2019년 8월 5일
바코드 : 979-11-964068-2-0
대상/타겟 : 20-40대 남성
정가 28,000원



온라인서점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인터넷교보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NUDE STORY ①

하숙집 아줌마와의
은밀한 밀회

하숙집 아줌마와의 은밀한 밀회

그녀는 내가 잠잠해질 때까지 내 옆에서 계속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몸에서 아기 냄새 같기도 하고 우유 냄새 같기도 한 좋은 냄새가 났다. 평소의 조신했던 모습과는 달리 슬립 차림으로 흐트러진 그녀를 보고 있자니 느닷없는 성욕이 끓어올랐다. 나는 이대로 더 있다간 큰일이라도 낼 것만 같아서 방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다. 그런데 그 순간 바지 속에서 불끈 솟아오른 내 물건이 아줌마의 눈에도 띄었던 모양이다. 내가 일어서자 그녀의 눈길은 자기도 모르게 내 사타구니를 향해 있었고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으니 말이다.

그 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술을 마시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술이 너무 취해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찾지 못했고 결국 초인종을 누르고 말았다. 그 때가 새벽 한 시경이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온 하숙집 아줌마는 검은색 슬립 차림이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술기운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위로는 봉긋하게 솟아오른 젖가슴이 다 드러났고 슬립 아래쪽으로는 통통한 허벅지 살까지 다 보였다. 잠결에 서둘러 나오느라 옷도 제대로 챙겨 입을 겨를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현관으로 들어서며 내가 조금 비틀거리자 아줌마는 얼른 나를 부축해줬다. 그 바람에 내 팔이 그녀의 젖가슴에 닿았는데 술기운 속에서도 나는 몽클거리는 좋은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아줌마는 남편이 깰까 봐 염려하면서도 내 방까지 부축해줬다. 그런데 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구토증이 일어 욕실로 뛰어 들고 말았다. 변기에 대고 웅웅거리며 구토를 하자 어느새 아줌마가 문을 닫고 뒤따라 들어와 내 등을 두드려 주었다.

“웬일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 아유, 이러다 우리 남편 깨겠네. 내일은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아, 아줌마, 정말 죄송합니다. 전 괜찮으니까 그만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그녀는 내가 잠잠해질 때까지 내 옆에서 계속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몸에서 아기 냄새 같기도 하고 우유 냄새 같기도 한 좋은 냄새가 났다. 평소의 조신했던 모습과는 달리 슬립 차림으로 흐트러진 그녀를 보고 있자니 느닷없는 성욕이 끓어 올랐다. 나는 이대로 더 있다간 큰일이라도 낼 것만 같아서 방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다. 그런데 그 순간 바지 속에서 불끈 솟아오른 내 물건이 아줌마의 눈에도 띄었던 모양이다. 내가 일어서자 그녀의 눈길은 자기도 모르게 내 사타구니를 향해 있었고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으니 말이다. 나는 서둘러 욕실을 빠져나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 꿀아떨어져 아침까지 정신없이 잠을 잤다.

외간 남자와 섹스 하는 그녀를 보다

아침에 눈을 뜨자 숙취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젯밤 보았던 하숙집 아줌마의 요염한 모습만은 생생하게 떠올랐다.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듣는 내내 머릿속에 아줌마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사실 말이 아줌마지 그녀와 나는 그리 나이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다. 군대를 다녀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나와 그녀는 겨우 두 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캠퍼스에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많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녀의 농익은 육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갑자기 내 눈앞의 여대생들이 어리게만 보였다. 뭐랄까, 덜 익은 과일처럼 풋내가 난다고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몹쓸 놈처럼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물론이고 그 남편도 모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다는데 아직도 무척 금실이 좋았고 아기만 없을 뿐 모든 면에서 행복한 부부였다. 그리고 내게도 객지 생활이 힘들지나 않을까 배려하며 항상 따뜻한 마음씨로 대해주었다. 그녀는 워낙 얌전하고 조신한 여자여서 별로 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만 주인아저씨는 호탕한 남자여서 나랑 가끔 집 안에서 술도 마시고 바둑도 두고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다. 강의는 몇 개 더 남아 있었지만 속도 안 좋고 해서 첫 강의를 끝나자마자 나는 그냥 강의실을 나와 버렸다.

속이 안 좋은데다 아침마저 걸렸으니 곧장 캠퍼스를 나와서 해장국집으로 향했다.

해장국집에서 뜨끈한 선짓국으로 배를 채우고 나니 좀 살 것 같았다. 나는 밥을 다 먹은 뒤에도 한참 동안 식당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아무래도 학교로 돌아가 강의를 들을 기분은 아니어서 그냥 내 방에 드러누워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곧장 하숙집으로 향했다.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한낮이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다행이었다. 그녀는 집을 비우고 어디 외출을 한 모양이었다. 만약 집에 들어서다 마주쳤으면 괜히 또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았다. 어제는 술에 취해 찾지 못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조용했고 인기척이 없었다. 갈증이 좀 났기 때문에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보리차가 든 물병을 꺼내 컵에다 물을 잔뜩 따른 다음 벌컥벌컥 들이켰다. 역시 숙취에 시달릴 때는 시원한 보리차만큼 맛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문득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 소리였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 소리긴 한데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아니라 요상한 신음 소리 같은 것이 아닌가. 나는 물병과 컵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살금살금 까치발로 안방을 향해 다가갔다. 안방은 주인 내외가 쓰는 방이었다. 주인아저씨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집에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사람 소리가 들려오니 이상한 것이다. 나는 나무로 된 문에 살짝 귀를 갖다 댔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나고 있었다. 그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알 수 있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바로 여자의 신음 소리였다. 그리고 간간이 남자의 거친 신음 소리도 들렸다. 그렇다면 지금 저 방 안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방 안에서 나는 소리에 더욱 더 집중했다. 계속되는 여자의 교성, 바로 하숙집 아줌마의 목소리였다. 소리만 듣고도 두 사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채 섹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짧고 규칙적인 그녀의 교성이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거기에 맞춰서 혈떡거리는 남자의 거친 신음 소리도 들렸다. 직접 두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조신한 그녀가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문의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손잡이에 힘을 주고 살짝 돌리자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손잡이를 다 돌린 다음 살짝, 아주 살짝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두 남녀가 침대 위에 발가벗은 채로 엉켜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한창 섹스에 열중하느라 내가 문을 살짝 연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긴 저런 상황에서는 폭탄이라도 터지지 않는 한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는 못할 것이다. 방안에는 커튼을 쳐 놓아서 약간 어둑어둑했지만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여자가 그녀라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 위에서 열심히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는 남자는 분명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낯선 남자의 뺨뺨한 물건이 그녀의 사타구니 속으로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펌프질에 맞춰 그녀의 몸이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숨 가쁘게 쏟아져 나오는 신음 소리에 온몸이 근질거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내 아랫도리가 뺨뺨하게 발기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하루 종일 그녀를 생각했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랑 섹스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다니 이 무슨 기막힌 노릇인가? 더 지켜보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 나는 일단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까치발로 살살 거실을 지나 집 밖으로 나갔다. 열쇠로 현관문을 다시 잠근 다음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Ding동’ 하는 소리가 집 안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기다린 다음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현관안쪽에서 ‘누구세요?’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아줌마 집에 계셨네요? 저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열쇠를 아직도 못 찾아서 말이에요.”

“어머, 진영이 학생이 이 시간에 웬일이예요? 오늘은 수업이 많은 날이잖아요?”

식사나 기상 등등의 문제 때문에 그녀도 내 강의 시간표는 대충 알고 있었다.

“어제 과음을 했더니 몸이 안 좋아서요. 어서 문 좀 열어 주세요.”

마침내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다. 나는 얼른 안으로 들어섰다. 옷이야 입었지만 얼굴

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데다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그녀는 섹스를 끝내지 못한 채로 나왔을 것이다. 그녀는 집에서 주로 입는 헐렁하고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저 치마를 들치면 그녀의 축축하게 젖은 무언가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다. 남자는 어디에다 숨겨 두었을까?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남편일지도 모르니까 일단 안방에는 숨겨 두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거나 그놈이 도망칠 시간은 쥐야만 했다. 괜히 맞부딪혔다간 일이 복잡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몸이 피곤하니 샤워를 좀 해야겠다고 그녀도 들을 수 있게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곧장 욕실로 들어갔다. 옷을 벗고 일부러 큰 소리가 나도록 샤워기를 세게 틀었다. 설마 내가 있는데 그 남자와 다시 섹스를 하지는 않겠지. 나는 샤워기를 틀어 놓은 채 욕실 문에 바짝 귀를 갖다 댔다. 아니나 다를까, 문 바깥쪽에서 뭔가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 그 남자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는 것이리라. 그제야 나는 느긋한 기분으로 샤워를 했다. 이후 닥쳐올 일을 떠올리며 말이다. 다시금 고개를 드는 아랫도리가 그 일을 상기시켰다.

은밀한 욕망을 부채질하는 그녀의 알몸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부엌에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식탁 앞에서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짐짓 모른 체 하면서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점심을 먹고 나서 식탁을 깨끗이 치워 두었기 때문에 분명히 식탁 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을 꺼냈다. 그제야 나는 아까 내가 마시다 놓아둔 물병과 컵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진영이 학생은 들어오자마자 곧장 욕실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식탁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흠, 아마 낯선 남자라도 집에 들어왔었나 보죠?”

나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씩 웃어 보였다.

“네? 그게 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녀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도 같다는 예감이 들었

다. 어차피 내가 밀질 건 없었다. 조금 더 배짱 있게 나가자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다가서자 그녀는 슬쩍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바로 뒤에는 싱크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가지 못하고 싱크대에 엉덩이를 부딪쳤다.

“아줌마, 왜 그러세요? 뭔가 찢리는 일이라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알게 되면 곤란한 그런 일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녀는 마치 고양이 앞의 쥐처럼 움짱달짝 못하고 있었다. 숨이 가빠져 쉼쉼거리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잔뜩 겁에 질린 그녀의 모습을 보자 그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마저 생겼다. 나는 그녀의 코앞에다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말했다.

“흐흐, 아줌마, 조금 전에 안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해볼까요?”

그녀는 모든 게 끝장이라는 듯이 ‘아’하는 탄식을 내뿜으며 두 눈을 감고 말았다. 나는 손을 내려 그녀의 원피스 자락을 끌어올리고 그 속으로 슬쩍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그녀가 내 손을 탁 쳐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는 거칠게 그녀의 팔을 확 붙잡았다.

“가만히 있어 봐요. 뭐 좀 확인해 볼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다시 내 손을 그녀의 원피스 속으로 불쑥 집어넣었다. 그리고 매끄러운 허벅지를 쪽 훑으며 올라가 그녀의 사타구니에 손바닥을 갖다 댔다.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은 미끌미끌한 애액을 듬뿍 담고 있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긴 남자의 물건을 꽂아 넣고 있다가 부랴부랴 나오는데 팬티까지 입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겠지. 나는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채 그녀의 그곳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새 나왔다.

“이거 봐요, 이렇게 미끌미끌 젖어 있는 걸 보니 조금 전까지 뭔가가 들어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하악, 진영이 학생. 그러지 말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손이 계속 자신의 사타구니를 만지자 고개를 뒤로 젖히고 신음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녀의 구멍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물기가 흘러나와 내 손바닥이 흥건하게 젖고 손목까지 흐를 정도였다.

“아줌마, 말해보세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아저씨에게 얘기할까요? 아님, 얘기하지 말까요?”

“부, 부탁이에요. 제발 그이에게는 말하지 말아 주세요.”

“그럴까요? 그런데 그게 맨입으로는 좀 곤란한데요?”

“그, 그럼 어떻게...”

나는 가운데손가락을 움직여 그녀의 살점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자 내 손가락은 그녀의 구멍 속으로 쭉 밀려들어갔다. 그 골짜기에서 뜨거운 기운이 배어나왔다. ‘하야’하고 그녀가 길게 신음을 내질렀다.

“일단은 아까 하던 일을 끝내야죠. 제가 도와 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아줌마가 더 원하는 것 아닌가요?”

구멍 속에 들어가 있는 손가락을 살살 움직이면서 자극하자 그녀는 두 손으로 싱크대를 꼭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욕정의 불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조금 전 그 남자와 제대로 섹스를 끝내지 못했을 테니 오죽하겠는가. 내 손가락의 움직임에 두 눈을 감은 채 신음 소리만 내뱉던 그녀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방으로 가요.”

“왜요, 여기도 괜찮은데요?”

나는 그녀의 원피스를 밑에서부터 까뒤집어 위로 올렸다. 그녀는 두 팔을 감싸고 원피스를 벗기지 못하게 약간 저항을 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치마 자락을 끌어올리자 결국 두 팔을 풀고 순순히 원피스를 벗었다. 팬티를 입지 않은 것처럼 브래지어 역시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내 눈앞에 드러난 그녀의 알몸을 감상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슴을 살짝 가렸지만 간신히 유두만 가리는 형편이었다. 정말 풍만하기 이를 데 없는 유방이었다. 나머지 한 손은 자신의 은밀한 삼각주를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허리

에서 골반까지 내려오는 곡선은 둥그스름하고 매끄럽게 뻗어 두툼한 허벅지로 이어지고 있었다. 역시 날씬하기만 한 처녀의 몸과는 달리 풍만하고 농익은 느낌을 주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그녀를 내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돌리며 별다른 저항 없이 내 품에 안겼다. 나는 두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쓸어 주면서 천천히 아래쪽으로 향했다. 마침내 불룩하게 솟아오른 엉덩이가 손에 닿자 나는 두 손으로 힘껏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탕탕하면서도 엄청나게 큰 엉덩이였다. 그녀는 내 손에 엉덩이가 잡히자 '아'하는 신음을 내뱉으며 살짝 힘을 주어 나를 안았다. 나는 그녀의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그녀의 얼굴에 키스를 했다. 처음에는 내 입술을 피하려고 고개를 몇 번 돌리더니 곧 내 키스를 받아들였다. 혀로 그녀의 목을 핥자 그녀는 고개를 뒤로 쪽 젖히며 뜨거운 숨을 토해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갰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입술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혀를 그녀의 입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입을 열고 나를 받아 주었다. 아주 진한 키스였다. 나를 안고 있는 그녀의 팔에 점점 힘이 들어갔다. 마침내 뜨겁게 달궈진 그녀의 육체. 나는 한 손으로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벗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손이 내 팬티 속으로 쑥 들어왔다. 나는 갑작스런 신음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손이 팽팽하게 부풀어 있던 내 물건을 꼭 움켜쥐었기 때문이었다. 그놈은 더욱 뻗뻗하게 발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놈을 손으로 잡은 채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 주었다. 그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나는 더욱 흥분되었다. 역시 아줌마라서 그런지 일단 불이 붙으면 과감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으니 대낮에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이 안방에서 발가벗고 뒹굴었던 것이 아닐까? 남편이랑 그렇게 잉꼬부부로 소문이 났으면 서도 말이다. 여자의 욕정이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붙기 시작한 아줌마의 육체를 맛보다

나는 그녀가 내 물건을 만져 주는 동안 윗도리를 모두 벗었다. 그러자 그녀도 내 팬티를 훌랑 벗겨 버렸다. 이제 그녀와 나는 알몸이 되어 서로 부둥켜안고 진한 입맞춤을 나누

고 있었다. 불과 한 시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른 아줌마들처럼 수다스럽지도 않고 얌전해서 편하게 대하지도 못했던 그녀와 이렇게 알몸으로 부둥켜안고 있다니. 키스를 하는 동안에도 나무토막처럼 뺨뺨해진 내 물건이 그녀의 발가벗은 몸을 쿡쿡 쑤셔 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손으로 내 물건을 꼭 움켜잡고 방으로 가자고 했다. 그리고 앞장을 서서 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마치 고삐에 묶인 망아지처럼 그녀의 손에 내 물건을 붙잡힌 채 안방으로 끌려갔다. 안방에 들어서자 나는 일단 방문부터 닫고 문을 잠갔다.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모르지 않는가? 그 때까지도 그녀는 내 물건을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꼭 붙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덤석 끌어안고 같이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녀를 침대 위에 눕힌 채 나는 몸을 일으켜 두 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한 짝씩 잡고 옆으로 벌렸다. 짹 짹 벌어진 가랑이 사이로 그녀의 은밀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무성한 수풀 아래로 물기에 젖은 샘이 빛나고 있었다.

“흐흐, 아줌마가 내 앞에서 이렇게 가랑이를 짹 짹 벌리고 드러누울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그녀는 부끄럽다는 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살짝 가렸다.

“으응, 진영이 학생, 놀리지 말고 어서...”

평소 그렇게 얌전하던 그녀였기 때문에 조금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서 뭐요? 어서 어떻게 해 달라는 거죠?”

“아이, 놀리지 말라니까.”

“말해 보세요. 안 그러면 이대로 꼼짝도 안 할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두 팔을 뻗어 내 목을 덤석 감았다.

“진영이 학생, 어서 넣어 줘. 어서 넣어 달라고.”

더 이상 참을 것도 없었다. 내 목을 감고 끈적거리는 목소리로 어서 넣어 달라고 애원하는 그녀를 보자 내 물건이 빠져나갈 정도로 뺨뺨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대로 가랑이를 벌리고 있는 그녀의 사타구니에 내 물건을 쑤셔 넣었다. 이미 젖을 대로 젖어 있던 그녀의 살점들을 가르고 내 분신은 그녀의 몸속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깊이 파고들었다.

“하아악.”

그녀가 뜨겁고도 진한 신음을 내 귀에 토해냈다. 나는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천천히 펌프질을 시작했다. 불기둥처럼 뜨거운 내 분신이 그녀의 몸속으로 쭉쭉 빨려들 듯이 들어갔다. 그녀는 내가 아까 방문 밖에서 들었던 것처럼 짧게 끊어지는 신음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다. 서로의 사타구니가 맞닿을 정도로 깊숙이 밀어 넣을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젓히고 코맹맹이 소리로 연신 신음을 토해냈다. 내 허리가 움직이는 리듬에 맞춰 연주되는 그 소리는 인간의 몸이 악기라는 말을 실감나게 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나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녀의 신음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허리의 움직임을 빨리 했다. 그녀의 구멍이 내 물건을 꼭 물때마다 온몸이 찌릿찌릿했다. 어찌나 세계 조여 주는지 사람 손으로 잡아도 그렇게 세계는 못 조일 것 같았다.

“학, 학, 아줌마 정말 끝내 주네요.”

“아흐 진영이 학생, 더, 더 쑤셔 줘.”

그 얽전하던 그녀의 입에서 더 쑤셔 달라는 말이 튀어나오다니. 계속되는 자극 때문에 금방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왕복 운동의 속도를 조금 줄이며 폭발을 지연시키려고 했다. 그녀의 구멍에서 물건을 완전히 빼지는 않은 채 천천히 허리를 움직여, 왕복 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속도가 떨어지자 그녀는 내 물건이 자신의 몸 속 깊이 박힐 때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천천히 내 물건을 조였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에 손을 얹었다. 풍만하게 부풀어 오른 젖가슴을 손에 쥐고 살살 주무르면서 입은 젖꼭지에 갖다 댔다. 빠죽 불거져 나온 젖꼭지를 혀로 살살 돌려가면서 씹으니 너무나도 좋은 맛이 났다. 그녀도 한결 간드러진 콧소리를 내면서 몸을 배배 꼬았다. 유부녀의 젖가슴이란 이렇게 풍만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젖무덤까지 한 입에 넣고 쪽쪽 빨았다.

“아응, 진영이 학생, 자국 생기면 안 되니까 살살해.”

그러더니 그녀는 두 손을 뺀어 내 몸을 꼭 끌어안았다. 나는 아기처럼 그녀의 품에 안긴 채 젖을 빨면서 아래로는 허리를 움직여 그녀의 사타구니에 내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꼴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하여 나는 다시 그녀의 구멍속으로 내 물건을 사정없이 밀어 넣고 왕복 운동을 점점 빨리 했다. 그녀도 그에 호응

하여 내 물건을 사정없이 조여왔다. 나는 두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붙잡고 격렬하게 펌프질을 했다. 두 다리를 오므린 채 좌우로 가랑이를 좌 벌린 그녀의 몸통 속으로 굽은 내 물건이 설 새 없이 드나드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내 물건은 물기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녀의 꽃잎도 마치 침을 흘리듯 연신 물기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뻗뻗한 막대기와 부드러운 속살과의 마찰 속에서 찢걱찢걱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아, 아줌마, 너무 좋아요.”

“아흑, 진영이 학생, 나도, 아흑,”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갔던 쾌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몸속으로 내 물건을 쑤셔 넣었다. 그녀 역시 있는 힘을 다해 내 물건을 조여들었다. 나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다.

“아, 아, 아줌마, 나 이제 쌀 것 같아요.”

“하악, 난 몰라, 하악, 밖에다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몸 속 끝까지 내 물건을 밀어 넣은 채 힘차게 사정하고 말았다. 두 눈을 감고 온몸을 뻗뻗하게 경직시키며 나는 남아 있는 정액들을 모두 그녀의 몸속으로 뿌렸다. 그녀도 어느새 두 팔로 내 몸을 끌어안고 숨이 막히도록 조여 대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뜨거운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나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그녀의 몸속으로 쏟아 부었다. 그녀는 엄청난 힘으로 나를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움짱달짝 못하고 그대로 그녀의 품에 안겨 그녀의 두툼한 허벅지를 손으로 살살 쓰다듬어 주었다.

“아줌마, 정말 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춰 주었다. 그녀도 내 입술을 부드럽게 빨아 주었다. 그녀와 나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잠시 뜨겁게 입맞춤을 나누었다. 여전히 내 물건을 그녀의 질퍽한 몸속에 집어넣은 채로 말이다.

“아유, 어떡하지? 침대 시트가 젖지나 않았는지 몰라.”

한참만에야 그녀가 눈을 뜨며 말했다.

“가만있어 봐요. 아직 빠지는 않았으니까 조심하면 별로 안 쏟을 거예요.”

나는 묵직하게 늘어진 내 물건을 그녀의 몸속에서 조심스럽게 빼내고 구멍을 손으로 살짝 막았다. 그리고 그녀의 엉덩이를 아래쪽에서 붙잡고 살짝 들어 올렸다.

“어머나, 진영이 학생, 괜찮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나는 마치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조심스레 옮기듯 그녀의 엉덩이를 안고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침대에서 벗어나자 두 발을 딛고 바닥에 내려섰다. 그러자 그녀의 허연 허벅지를 타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삼각주를 무성히 덮고 있는 음모들도 끈적거리는 액체들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제가 너무 많이 썼나 봐요. 죄송해요.”

그녀는 그제야 부끄러운 듯 늘지대로 변해 버린 자신의 삼각주를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더 이상 정액이 흘러내리지 않게 자신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막고서는 바로 욕실로 향했다. 그녀가 욕실에 들어간 후 침대위에 혼자 남게 된 나는 마구 구겨진 침대 시트와 커튼을 쳐 놓아 어둑어둑한 방안을 죽 둘러보았다. 끈적거리는 액체를 잔뜩 뒤집어쓴 채 축 늘어진 내 물건을 보면서도 방금 있었던 일이 꿈처럼만 여겨졌다. 정말 꿈이었을까? 전혀 현실감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오후.

늘어질 대로 늘어진 몸을 일으켜 그녀가 들어간 욕실로 향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자 방금 전까지 내 밑에서 신음소리를 내던 그녀의 알몸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한번의 정사가 있는 후여서 그런지 그녀는 별로 놀라는 눈치도 아니었다. 한참 아랫도리를 씻고 있던 그녀,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샤워기의 물줄기를 뿌리며 상대방의 몸을 구석구석 씻겨 주었다.

굴곡 있고 풍만한 그녀의 몸을 쓰다듬으며 다시금 욕정이 발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머리를 잡고 아래로 눌러 내 사타구니를 마주보게 했다. 그러자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내 물건을 자신의 입에 넣고 정성스럽게 빨아 주었다. 나는 그녀의 부드러운 입안에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며 이제 이 여자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다가올 수없이 많은 쾌락의 나날들을 생각하며 행복감에 몸서리를 쳤다. 그게 내 행복한 하숙 생활의 시작이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말이다.

이소영 임팩트화보집



도서명 : 이소영 임팩트화보집
출판사 : 주식회사 임팩트크루
저자 : 주식회사 임팩트크루
크기 : 225×265
쪽수 : 144page
출간일 : 2019년 12월 27일
바코드 : 979-1196-797-836
대상/타겟 : 20-40대 남성

정가 28,000원

온라인서점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인터넷교보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NUDE STORY ②

손님 가리는
노래방 도우미

손님 가리는 노래방 도우미

도우미가 손님을 고른다고? 왠지 모를 호기심이 동했다. 나 정도면 그 여자가 튕기지 않을 거란 자신감도 있었고, 맘에 드는 남자랑은 엄청 진하게 논다는 점도 구미가 당겼다. 그녀를 불렀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외형을 지닌 여자였다. 그날 난 세 시간을 연장해가며 꽤나 진하게 놀았다. 섹스도 없었고 아주 진한 스킨십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꼭 하는 것만이 맛은 아닌 셈. 남자도 여자 못지않게 분위기에 취하는 동물이다. 애인 모드처럼 놀았다면 이해가 갈까.

똥마려운 강아지가 이런 모습일까. 하루 종일 제대로 일도 못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시로 핸드폰 시간만 확인하게 된다. 스스로 이렇게 느낄 정도니 상사의 눈에 안 띄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겠지.

“이대리, 너 아까 올리란 거 다 했어? 오늘 왜 그래.”

부장의 채근이 나를 현실로 끌어온다.

“네 부장님, 조금만 더 하면 다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 좋은 일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업무 시간엔 집중 좀 하자. 안 그래도 이달 실적이 별로라서 전무님 심기가 말이 아닌 거 알지. 제발 나 좀 살자.”

평소라면 부장의 잔소리에 마음을 상했을 게 분명하지만 오늘만은 예외다.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불후의 진리처럼 난 시간이 흐르기만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사실 이 정도로 설레 할 일이 아닌지도 몰랐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게 다인데 마치 첫사랑과의 데이트처럼 들떠 있으니 말이다. 냉정하게 본다면 이 설렘은 순전히 자극적인 섹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오늘 만나기로 한 여자는 지난 번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다. 겨우 도우미를 만나면서 이러는 건 너무 어리석다는 생

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녀를 겪어본 남자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싶었다. 어떤 여자이기에 이러냐고?

지난주의 일이다. 그날 친구들과 술 한 잔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12시를 조금 넘겨 파한 술자리였다. 다들 유부남이 되더니 몸을 사리는 녀석들 때문에 원치 않는 파장을 겪은 이후였다. 못내 아쉬웠다. 술도 모자랐고 또 다른 무엇도 그리웠다. 결국 나는 집 근처의 노래방을 찾아들었다. 몇 번 간 적이 있어 사장과도 얼굴을 트고 지낸, 말하자면 단골 노래방인 셈이다. 그 탓에 혼자 가는 것도 그리 낯설지 않은 곳이랄까. 혼자 들어오는 나를 보던 노래방 사장이 씩 웃더니 말을 꺼낸다.

“아가씨 하나 불러줄까?”

“예. 오늘은 좀 잘 노는 아가씨로 부탁드립니다. 기분이 좀 그러네요.”

“잘 노는 아가씨라. 알지? 나이가 좀 있는 언니들이 잘 논다는 거. 그래도 괜찮아?”

“돼지 얼굴 보고 먹나요? 잘 놀기만 하면 되죠.”

“그렇다면 말이지. 좀 묘한 언니가 있어. 도우미 주제에 자기가 남자를 고르는 처잔데, 아마 자네보다 서너 살 정도는 많은 것 같아. 손님이 맘에 안 들면 자기가 나오더라니까. 근데 일단 맘에 드는 손님하고는 엄청 진하게 놀더라고. 자네 정도면 그 여자도 좋다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불러줄까?”

세상에 별 여자가 다 있네. 도우미가 손님을 고른다고? 노래방 도우미 중에 가끔 이런 부류가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보게 될 줄이야. 웬지 모를 호기심이 동했다. 무엇보다 나 정도면 그 여자가 튕기지 않을 거란 자신감도 있었고, 맘에 드는 남자랑은 엄청 진하게 논다는 점도 구미가 당겼다. 그렇게 그녀를 불렀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외형을 지닌 여자였다. 얼굴도 그랬고 몸도 그랬다. 당연히 나는 그녀의 간택 아닌 간택을 받았고 그날 난 세 시간을 연장해가며 꽤나 진하게 놀았다. 섹스도 없었고 아주 진한 스킨십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꼭 하는 것만이 맞은 아닌 셈. 남자도 여자 못지않게 분위기에 취하는 동물이다. 애인 모드처럼 놀았다면 이해가 갈까.

다음날 출근 시간에 쫓겨 나와야 했지만 아주 만족스런 밤이었다. 그건 그녀도 비

WWW.XSAVA.XYZ & WWW.SPICYMAGS.XYZ

슷했던 것 같다. 우리는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이후를 기약했다. 사실 그녀가 전화를 줄 거란 확신은 없었다. 그때 그녀가 그랬다.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괜찮은 남자와 놀고 싶은 생각이 훨씬 크다는 게 그녀의 말이었다. 그래서 도우미 주제에 손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그런 말도 했다. 내가 꽤 맘에 든다고. 연락할 테니 다음엔 제대로 놀아보자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도 같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녀가 연락을 해왔다. 내일 시간 되면 보자는 그녀의 전화. 그리고 덧붙였다. 내일은 정말 제대로 놀아보자고. 바로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는 것이다. 과연 오늘은 제대로(?) 놀 수 있을까.

뿌리칠 수 없는 그녀의 유혹

결국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건 나였다. 연하남을 만나면서 이렇게 배짱을 부려도 되나 싶지만 아무려면 어쩐가. 잠시 후 그녀가 도착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본 그녀는 지난번 노래방에서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나보다 연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오히려 내가 오빠처럼 보이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흔히 늦은 밤 술 취한 상태에서 야릇한 조명 아래서 본 여자가 밝은 햇살 아래서 보면 훨씬 못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는 반대였다. 오히려 옅은 화장을 한 지금의 그녀가 더 예뻐던 것.

스타일도 그랬다. 30대 중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스타일리시한 그녀였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가 걱정될 정도로 하늘하늘한 얇은 블라우스, 걸을 때 종아리가 살짝살짝 드러나는 긴 플레어스커트를 입은 자태는 딱 내 타입이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역시 그녀가 뿜어내는 묘한 매력이었다. 색기가 흐른달까.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녀만의 아우라 같은 것이 있었다. 제 눈에 안경 같은 게 아니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주변 남자들이 한 번씩 곁눈질을 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으니까. 웬지 뿌듯함이 느껴졌다.

“왔어요. 오늘 완전 예쁜 거 알죠?”

“고마워. 자긴 역시 센스쟁이인 거 같아.”

“일단 저녁부터 먹죠. 뭐 좋아해요?”

“아무 거나 좋아. 가볍게 먹자.”

벌써 골라놓았다. 약속 장소 근처에 맛있는 곱창집이 있음을 파악한 후였으니까. 지난번에 그녀가 곱창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을 잊지 않았던 까닭이다. 내가 그녀를 곱창집으로 안내하자 다시금 칭찬을 보낸다.

“진짜 센스쟁이네. 내가 곱창 좋아한다고 한 거 기억하는 구나?”

“예쁜 여자의 말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죠. ㅋㅋㅋ.”

“말만 살아서. 아무튼 기분은 좋다. 오늘은 맘껏 마시고 죽자.”

“저녁에 일하러 가야하지 않아요?”

“일은 무슨. 지난번에 말한 걸로 아는데. 나 돈 벌려고 거기 나가는 거 아니라고.”

“하긴. 알았어요. 오늘 맘껏 먹고 제대로 놀아 봐요.”

“하하, 제대로 논다는 게 뭔지나 알고 그러는 거야?”

“아마 제 생각이 누나 생각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걸요.”

“그렇까. 근데 누나라고 부르지 마. 그냥 이름 불러. 그리고 말도 편하게 하고. 웬지 내가 나이 들어 보이잖아. 그건 싫거든.”

“그럼 그럴까요? 아니 그럴까. 하하하.”

“일단 먹고 보자. 건배. 제대로 노는 밤을 위하여.”

“제대로 노는 밤을 위하여.”

외모도 그랬지만 성격도 진짜 맘에 드는 여자였다. 내숭도 없고 빼는 것도 없는 여자와 노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란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안주 삼아 빠른 속도로 술을 비워갔다. 테이블에 쌓이는 술병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친밀함을 키울 수 있었다. 어느 순간 그녀, 아니 이제는 이름을 불러야지. 선미는 두 팔꿈치를 탁자에 짚고 손으로 턱을 괴었는데 손바닥으로 받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맞잡고 한쪽으로 모아 볼에 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는데, 섹시하면서도 귀여웠다. 그 모습을 보자 아랫도리가 자동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상상만으로 발기한다는 게 민망했지만 나는 남자 아닌가. 그때 선

미가 갑자기 웃었다.

“킁킁.”

“왜 웃어.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웃자.”

“귀여워서 그래.”

“에? 그게 다 큰 남자한테 할 소리야. 섹시하다거나 야성적이라면 모를까.”

“사실이 그런 걸 난들 어째.”

“아무렇게나 생각하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그때도 내가 귀엽다고 말할 수 있을지 보자.”

“엥, 자신만만하네. 지켜볼게, 호호호.”

“보고 놀라지마 마셔.”

“지난번에 바지 위로 느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직접 보는 거랑 옷 위로 느끼는 건 다르거든요.”

서서히 이야기가 야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원래부터 이런 걸 기대하고 시작된 만남인 데다가 술까지 곁들여지니 가속이 붙을 수밖에.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을 정도였다. 서서히 두 사람 사이에는 야릇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종의 기대감 같은 거였다. 이젠 좀 더 진도를 나가야한다. 내가 먼저 운을 뗐다.

“나가자. 다른 데 가서 놀아야지.”

“다른 데 어디?”

내심 속을 들킨 것 같아 뜨끔했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편하게 먹자는 거지. 설마 이상한 생각 한 거야?”

“흠, 그럴래나. 알았어. 일단 나가자. 아니다. 그냥 노래방 가서 가볍게 술 한 잔 더 하고 놀자. 혹시나 오해할까봐 덧붙이는 건데 난 노래방에서 놀 때 제일 달아올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어디라도 상관없다. 우리 둘만 있는 공간이라면. 그녀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 노래방을 찾았다. 가는 길에 그녀가 팔짱을 끼온다. 그러자 전해지는 폭신한 쿠션의 감촉. 거의 내 팔을 안듯이 팔짱을 끼는 바람에 팔에 선미의 가슴이 닿은 것이다. 날씬

한 몸매치고는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지는 가슴이었다. 가슴이 닿았다는 생각을 하자 잠깐 시들었던 팬티 안 그 물건이 꿈틀거렸다. 선미도 내 팔뚝이 가슴에 닿은 걸 알 텐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내 팔을 안고 있었다. 벌써부터 시작한 건가. 뭐 나아 좋지. 노래방에 들어온 우리는 맥주 몇 캔을 시키고 노래를 골랐다. 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선미가 고른 것들이었다. 한 번에 네댓 개의 곡을 예약하고는 나를 부른다.

“우리 춤 춰.”

역시나 그랬다. 노래는 핑계고 그를 빌미로 몸을 접촉하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가만 보니 줄곧 내가 리드 당하는 느낌이다.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끌려가도 좋겠다. 앞으로 나가니 선미가 나를 끌어안는다. 그러면서 내 손을 끌어다 자신의 허리에 얹어주는 그녀.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그녀는 꽤나 몸매 관리를 한 티가 여신했다. 적당히 나잇살이 붙을 법도 하건만 그녀의 허리는 군살 하나 없는 상태였다. 치마의 허리라인으로 조여 댄 부분에도 아무 굴곡이 없이 매끈했다. 손맛이랄까? 느낌이 최고였다. 옆구리에서 힙까지 쓰다듬어도 완만한 신체의 곡선 뿐, 걸리는 게 없을 듯했다.

얇은 옷감 너머로 은근히 손바닥 전체를 대고 선미의 매끈한 라인을 슬쩍슬쩍 쓰다듬었다. 한 손은 마이크를 들고 한손은 선미의 허리께를 쓰다듬고 있는데 선미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쯤 되었으면 막 가자는 거지. 팔을 선미의 허리에 둘러 거의 껴안듯이 하고 선미의 어깨 근처에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날씬한 허리는 내 한 팔에 쏙 들어왔다. 노래하는 내내 그렇게 껴안고 있었다. 가끔은 일부러 선미의 귓가에 내 숨결을 내뿜었다. 노래가 끝나고도 선미는 계속 내 품에 기댄 채 흥얼거렸다. 리모컨으로 다음 노래를 눌렀고, 반주 음악이 나오는데도 우리는 계속 서로 안고 있는 상태였다.

선미가 고개를 드는 게 느껴져서 나도 선미를 내려다보았다. 선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 어깨에 얹었던 손을 미끄러뜨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도 그녀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던 그녀의 손가락이 주는 짜릿한 느낌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 설마 싶었지만 그녀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고른 이 노래방의

조명은 상당히 어두웠고, 문에는 창이 있었지만 문 쪽 벽에 붙은 소파라면 창으로 들여다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니까. 어찌면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노래방에 들어온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자 정직하게 몸이 반응해오기 시작했다. 바지 앞섬이 조금씩 융기해온 것. 이렇게 몸을 바짝 붙이고 있는 상태니 선미라고 그걸 모를까. 때마침 위치도 적절하게 맞붙어있었으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얼핏 선미의 얼굴에 미소가 스쳐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선미의 그 웃음을 나는 그 때 분명히 보았다. 선미의 손은 그때 이미 내 가슴까지 내려왔다. 내 얇은 셔츠를 사이에 두고 선미의 손가락이 내 젖꼭지에 닿았다. 거기서 선미의 손가락은 더 내려가지 않고, 젖꼭지를 살짝살짝 돌리듯 쓰다듬었다. 그건 분명히 애무였고, 유혹이라기보다는 도발에 가까웠다.

가만히 있어도 색기를 뿜어내는 여자가 내 품에 안겨서 남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있는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 세상은 넓으니 아주 드물게 그런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절대 아니었다. 그녀의 도발을 나 몰라라 할 만큼 나는 착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바라다보자 그녀가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을 감았다. 그것만 봐도 이미 짐작했는데, 더불어 입술까지 살짝 내밀어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달콤했다. 비록 방금 전에 먹은 맥주와 새우깡의 향기가 남아있긴 했지만 그조차도 내 식욕을 동하게 하는 것이었을 정도였다.

우리는 정신없이 그 행위에 몰두했다. 처음엔 그녀의 리드에 따른 것이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상황을 이끌고 있었다. 내가 혀를 넣어주면 빨고, 내가 혀를 빼면 그녀의 혀가 따라 나오는 상황으로 변한 것. 이렇게 제대로 된 키스를 하는 게 얼마만인 건지. 밤새 이 짓만 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키스였다. 물론 그래선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황홀한 건 사실이었다. 알겠지만 키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게 마련이다. 나 역시 그랬다. 처음 그녀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던 손이 어느샌가 블라우스 앞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 내 젖꼭지를 먼저 만진 건 그녀였으니 이젠 내 차례다.

선미의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살짝 눌러본 선미의 가슴은 아까 팔짱을 낄 때 짐작했던 것처럼 탄력이 느껴졌다. 조금은 아쉬웠다. 생생한 감촉을 느끼기엔 한계가 있는 까닭이었다. 결국 난 블라우스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블라우스를 치마에서 꺼내 그 밑으로 손을 집어넣기에 이르렀다. 한번쯤은 뺄 법도 한데 선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였다. 자신의 가슴으로 손이 들어올 것이 분명한 이 상황에서도 선미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계속 내 입술만 빨고 있었으니까. 제대로 놀겠다면 그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오케이. 그 정도로 단단한 각오를 보여주는데 남자인 내가 꼬리를 내리면 안 되겠지. 우리 오늘밤, 진짜 제대로 한 번 놀아보자. 시작한다.

노래방에서 느껴본 맛보기

일단 손맛을 느껴볼 시간이다. 브라 컵을 위로 살짝 밀어올리고 손을 넣어 선미의 맨 가슴을 만졌다. 날씬한 체격에 알맞게 아담한 가슴이었지만 내 손에 들어온 선미의 가슴은 마치 작은 고무공같이 탱탱했다. 발딱 선 작은 젖꼭지가 손끝에 걸렸다. 놀란 만큼 큰 건 아니었지만 내 손에 딱 차는 느낌이 인상적이었다. 선미가 입술을 좀 더 세게 빨면서 코로 신음을 흘렸다.

“흐음.”

그 소리가 무슨 마법의 명령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다른 한 손도 올려 양쪽 가슴을 같이 만지기 시작했다. 블라우스가 밀려 올라갔고 자칫하면 찢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한 손은 계속 가슴을 만지면서 한 손으로는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 단추를 다 풀어내고 내친 김에 손을 뒤로 돌려 브래지어 호크까지 풀어냈다. 선미는 움찔거렸지만 거부하거나 내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하긴 이 상황을 만든 건 그녀 자신이었으니 그럴 이유가 없겠지. 나는 선미가 보여주는 반응에 더욱 흥분해서 몇 분 동안 정신없이 가슴을 주무르기만 했다. 선미는 또 아까처럼 신음을 흘렸다. 이건 마치 애무를 바꿔달라는 신호로 들렸다. 나는 선미의 혀를 놓아주고 턱으로 입술을 옮겼다. 가슴을 만지던 손도 하나를 빼서 선미를 끌어안았다. 입술은 턱에서 목으로, 목에서 쇄골로, 어깨로 옮겨 다녔다.

선미의 블라우스는 이미 거의 벗겨져서 어깨도 일부 드러나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까만 브라 끈이 선명할 정도로 새하얀 어깨였다. 살짝만 빨아도 키스마크가 생길 듯 같다는 생각에 아주 조심스럽게 훔듯이 빨았다. 내 입술은 선미의 어깨를 돌아 다시 쇄골을 거쳐 목으로 올라왔다. 목을 잠시 애무하다 마지막으로 귀로 향했다. 혀를 내밀어 선미의 귓불을 처음 건드렸을 때, 선미가 움찔 몸을 떨었다. 본능적으로 이곳이 성감대라는 것을 느끼게 할 만한 움직임이었다. 살짝살짝 훔다가 입에 살짝 넣어 빨았다. 내 목을 안았던 선미의 팔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이제 선미의 팔은 그저 내 어깨 위에 얹어 놓았을 뿐, 끌어안는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따금 어깨를 꼬집듯 움켜쥐기만 했다. 선미의 귓불을 조금씩 빨다가 귀 전체를 입에 넣고 혀로 귓바퀴 안쪽을 훔았다. 선미가 바들바들 떨면서 신음을 내뿜었다. 그렇게 내 품에서 바들거리는 선미의 떨림을 느끼면서 귀를 빨다가 혀로 귓구멍을 톡톡 쳤다.

“하응, 하앙.”

선미의 몸은 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내 혀가 귓구멍을 건드릴 때마다 숨을 가쁘게 쉬며 움찔거리고 바들바들 떨었다. 반응이 좋으면 애무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다. 애무할 맛이 난다고나 할까. 뺨으로 내려와 입술에 잠깐 키스한 후 오른쪽 귀도 똑같이 애무해 주었다. 오른쪽 귀로 가다가 들른 입술에 잠시 머물렀을 때 미친 듯이 내 혀를 빨아대던 선미의 반응으로 보아 귀 애무는 선미를 꽤 자극한 것 같아서 나 혼자 흡족해 했다.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귀를 훔고 빨면서 잔뜩 흥분시켜 놓고, 한 손으로 선미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잡히는 대로 치마를 끄집어 올렸다. 몇 번을 접어 올리자 치마 밑단이 잡혔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선미의 허벅지에 손을 댔다. 허벅지는 마치 아기 피부처럼 매끈했다. 선미가 입술을 빨며 혀를 들이밀었다.

선미의 피부는 진짜 매끈했다. 모공이나 솜털 같은 그 어떤 것도 손에 걸리는 느낌이 전혀 없이 말 그대로 매끈한 피부였다. 다시 한 번 감탄했다. 이런 여자를 안게 되다니. 선미가 내주는 혀를 빨며 손이 닿는 대로 선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손을 펴서 천천히 쓰다듬을 때에는 엉덩이를 움찔거리었고, 손끝을 세워 스치듯 긁을 때는 콧소리를 내며 거친 콧숨을 내뿜었다. 뺨에 느껴지는 선미의 숨결은 후끈하고 축축

했다. 선미의 혀가 빠져나갔고, 따라가는 내 혀를 뽑아먹을 듯 빨아댔다.

선미의 다리 사이로 내 다리를 넣으며 뒷걸음질 쳐 소파에 앉았다. 내 입과 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선미의 입술과 귀, 내 손을 가만 두지 못하게 하는 선미의 매끄러운 피부는 딴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내 양손에 들어온 선미의 엉덩이. 선미의 엉덩이는 날씬한 몸매에 비해서는 살집이 있었고 동시에 탄력이 있었다. 손을 떼고 싶지 않은 매끈함과 거기에 더해서 탱탱한 탄력감. 팬티를 벗기고 물건을 박아야겠다는 생각조차 잊은 채 그 엉덩이를 만지는 데 집중했다.

밝은 데서 다 벗기고 보고 싶었다. 선미의 엉덩이가 위로 올라붙어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틀림없이 위로 올라붙어 있겠지? 손으로 느끼는 정도가 이런데 직접 보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죽여주는 몸매를 가진 여자가 내 애무에 몸을 떨며 신음하고 있다는 뿌듯한 기분이 들자 아랫도리 한 곳이 더욱 뿌듯해졌다. 선미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몸을 뒤틀었다. 내 목덜미에 거친 숨을 내뿜는 그녀. 내 목을 안고 있는 선미의 치마 밑으로 양손을 다 넣어 팬티를 끄집어 내렸다.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다리를 벌려 내 손길을 도와준다. 그리 어렵지 않게 내려가는 팬티. 그러나 아직 치마가 그대로 걸쳐져있어 그녀의 비밀스런 공간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제 저 치마만 벗기면 된다. 그때였다.

“잠깐만. 나만 벗는 건 불공평해.”

이건 또 무슨 소리인 건지. 그녀의 시선이 내 몸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아, 그런 거였구나. 온통 흐트러져 있는 그녀와는 달리 난 멀쩡한 상태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껏 나 혼자 그녀를 탐하고 있었으니 당연한 거였다. 함께 즐기긴 했지만 그래도 선미로선 뭔가 아쉬움이 남은 표정이었다.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일이 나로서도 나쁜 건 아님이 분명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난다. 그와 동시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손. 그녀의 손이 향한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눈으로 봐도 불룩하게 솟아있는 그곳을 옷 위로 쓰다듬는다. 짜릿한 전류가 느껴진다.

“허억.”

절로 발해지는 신음. 이런 맛에 여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겠지.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님이 분명한 스킬이 나를 들끓게 만든다. 손길도 그랬지만 그녀의 눈빛이 더 나를 자

극해왔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둔 것처럼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이 지극히 관능적이었다. 천천히 움직이며 내 물건의 모양새를 확인하는 그녀. 한동안 그렇게 움직이던 그녀가 이젠 됐다는 듯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끌어내린다. 수월하게 바지가 내려갔고 앞섬이 젖은 팬티가 드러난다. 잠시 응시하던 그녀가 팬티마저 내리자 그 안에서 갑갑해하던 남자가 고개를 쳐든다. 한껏 자라난 내 분신이 반갑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하아, 대단하다.”

정말 감탄한 말투다. 웬지 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꺼덕거리고 있는 남자의 물건이 그녀에게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선미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더니 입을 가져간다. 어느새 선미의 얼굴 앞에서 오만한 자태를 뽐내는 그 녀석이 금세라도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빨듯 말듯 애태우는 그녀. 역시 남자를 다룰 줄 아는 여자다. 이렇게 애태우면 남자는 더 달아오르게 되어있는 법이다.

“뭐야? 자꾸 그러면 내가 덮친다. 빨리.”

“호호호, 급하긴 급했나 보다. 알았어.”

마침내 그녀가 손을 가져온다. 남자의 물건을 동그랗게 말아 쥐고 아래위로 문지르는 그녀의 손놀림에 나도 모르게 거친 한숨을 토해 내며 몸을 떨었다. 어느새 주도권은 다시 그녀에게로 흘러갔다. 커다란 몽둥이를 뿌리서부터 쓸어 올리듯 손끝으로 매만지는 그녀는 이내 갈라진 틈새를 엄지로 누르듯 문지르며 정성껏 그 녀석을 애무해 갔다.

“으으.”

그 자극적인 손놀림에 나는 다시 한차례 한숨을 흘려 갔다. 어느새 흘러나왔는지 희멀건 액이 빠져나와 그녀의 손가락에 묻어갔다. 자신의 손가락에 묻은 그 액체를 맛보는 그녀가 지극히 음란하게 보였다. 이 여자 정말 남자를 잘 다룬다. 맛있었나 보다. 마침내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안으로 한껏 발기된 내 물건이 들어갔다. 앓은 채로 남자를 핥기 시작하는 그녀. 그건 색다른 흥분의 물결이었다. 선미가 그 물건을 마음껏 희롱하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는 내 분신은 그녀를 더욱 더 큰 흥분 속으로 밀고 갔다. 그녀가 흥분을 억제 못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귀두를 앞으로 잘근잘근 씹어대자 나는 진한 신음을 토해냈다.

“허억, 너무 좋다.”

남자라면 알 것이다. 따뜻한 여자의 입 속에 몸을 담근다는 게 얼마나 짜릿한 지를. 지금 내가 그렇다. 짜릿하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녀는 입 속에 들어온 내 물건을 훔아주다 입 안쪽으로 깊이 넣어준다. 그리고 손으로 불알을 주물러준다. 남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녀다. 그녀의 집요한 애무에 자지러질 듯 흥분하는 나. 이렇게 큰 흥분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남자는 없다. 내 몸에 퍼지는 경련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준다. 아무래도 격량이 일 모양이다. 다른 때라면 그녀를 제지하고 한숨 돌리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러고 싶지 않다. 굳이 삼입이 없었다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것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 그녀도 나도 오늘밤 내내 타오를 각오가 분명했던 까닭이다. 일종의 애피타이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각오가 선 나는 손을 들어 아래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던 선미의 머리채를 부여잡는다. 내 다리에 근육이 형성되고 엉덩이가 쉴룩거린다. 남자가 사정 직전에 보이는 몸짓을 보여 오자 선미의 눈이 커다랗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잠시 후 동작이 멈춘다.

“헉헉 나 쌀 것 같아.”

대답 대신 더 격하게 머리를 흔드는 그녀. 더 이상 참지 못한 나는 마침내 울음을 토해낸다. 그녀의 입천장을 때리는 정액 덩어리들이 질주를 시작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액 세례를 묵묵히 받아내는 그녀. 정말 황홀한 순간이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던 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그때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입안에 축적된 액체를 뱉지 않았다. 내가 자신을 쳐다보자 오히려 꿀꺽 삼키기까지 하는 그녀였다. 정말 짜릿한 광경이었다.

“맛있다 자기.”

이 음탕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어느새 노래도 끝나있었다. 아무래도 나가야겠다. 남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려면 우리만의 공간을 찾아야하는 까닭이다. 근데 조금 무섭기도 하다. 저런 여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일단은 부딪쳐보자. 뭔가 답이 나올 테니 말이다.

걸크러쉬 임팩트화보집

IMPACT

걸크러쉬



도서명 : 걸크러쉬 임팩트화보집
출판사 : 임팩트크루
저자 : 임팩트크루
크기 : 225×265
쪽수 : 176page
출간일 : 2019년 7월 1일
전화번호 : 02-598-8882
바코드 : 979-11-964068-3-7
대상/타겟 : 20-40대 남성
정가 27,000원

온라인서점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인터넷교보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NUDE STORY ③

불감증 깨뜨린
마성의 남자

불감증 깨뜨린 마성의 남자

물론 타고난 하드웨어가 훌륭하긴 했다. 서양인처럼 거대한 페니스가 그랬고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강인한 체력 역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로 인해 유선이 오르가즘을 느낀 건 아니었다. 그런 것이라면 다른 남자에게도 느낄 기회가 있었으니까. 유선은 그의 남자다움에 매료된 것이었다. 심하게 말하면 두 사람의 섹스는 주인과 노예의 그것과도 같았다. 이전에 만났던 다른 남자와는 달리 자신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포스에 쾌감을 느끼곤 했으니까. 혹시 유선에게 피학적 성향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남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평생을 섹스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그녀에게 섹스란 언제나 무미건조한, 때로는 고통만을 안겨주는 천박한 행위에 불과했으니까. 첫 번째 결혼 생활이 파경으로 끝난 이유도 온전히 섹스 때문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느낄 수 없었던 행위였으니 그를 즐겨야겠다는 마음도 가질 수 없었던 것. 결국 전 남편도 포기하고 말았다. 전 남편이 나쁘거나 한 건 아니었다. 어느 정도 조건도 맞았고 생각도 비슷했지만 단 하나, 섹스에 대한 부분을 조율할 수 없었기에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고 나서도 좌절을 느꼈던 건 아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섹스가 즐겁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오히려 섹스에 대한 의무에서 해방된 것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시는 남자와 엮이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녀였다.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했다. 힘들 때면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게 남자일리는 없었다. 몇 번의 경험에서 체득한 것처럼 세상 모든 남자에게 섹스란 게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자신은 그 섹스를 제공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이유로 그녀에게 남자란 가질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물론 그를 만나기 전의 일이다. 그를 만나면서, 그리고 그와의

섹스를 접하게 되면서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다. 섹스란 게 그토록 즐겁고 그토록 황홀한 일이란 걸 알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처음 그를 만난 건 일 때문이었다.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던 유선이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인 지형을 만났을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생전 처음으로 첫 눈에 사람에게 끌렸던 게 그 이유다. 그것도 남자에게 끌렸던 게 너무도 놀라웠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한 눈에 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겠지만 유선은 그랬다. 그래서 더 놀라웠다.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도 그랬지만 그 남자의 생각이나 화법은 더욱 더 유선을 매료시켰다. 그 때문에 유선은 지형에게 어느새 사로잡혀 간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놓고 대시한 건 아니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데.

물론 나름의 호감은 표시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지형 같은 남자가 유선을 옆에 두려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유선과 달리 지형은 일 때문에 결혼을 못한 케이스였다. 유선이 첫 눈에 반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지형은 누가 봐도 매력이 넘치는 그런 남자였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를 향한 구애의 화살을 날렸지만 그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 구애를 물리쳐왔던 남자였다. 그런 남자가 유선의 호감을 받아들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단 한 번의 섹스로 유선의 불감증을 거짓말처럼 깨어버린 일 아닐까.

두 사람의 섹스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거짓말 같지만 먼저 섹스를 요구한 건 유선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지 않던 섹스를 요구할 만큼 지형을 놓치기 싫었던 마음이 드러난 것일 터. 물론 기대는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즐겁지 않았던 섹스였으니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유선이 지형과의 섹스에서 오르가즘을 맛본 것. 지형의 섹스는 평소 그가 보여주는 매력만큼이나 놀라운 것이었다. 단순히 테크닉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섹스는 때론 진중했고 때론 달콤했고 또 때론 압도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물론 타고난 하드웨어가 훌륭하긴 했다. 마치 서양인처럼 거대한 페니스가 그랬고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강인한 체력 역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단지 그 이유로 인해 유선이 오르가즘을 느낀 건 아니었다. 그런 것이라면 다른 남자에게도 느낄 기회가 있었으니까. 유선은 그의 남자다움에 매료된 것이었다. 심하게 말하면 두 사람의 섹스는 주인과 노예의 그것과도 같았다. 이전에 만났던 다른 남자와는 달리 자신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포스에 쾌감을 느끼곤 했으니까. 혹시 유선에게 피학적 성향이 있는 건 아닐까.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순 없다. 가끔은 지형의 거칠기까지 한 몸짓에 젖곤 했으니 말이다. 어젯밤도 그랬다. 몇 번에 걸친 섹스에 녹초가 된 유선이지만 그가 요구할 때마다 기꺼이 다리를 벌려 줬으니까. 문제는 그래도 좋았다는 것. 유선은 아마 절대로 이 남자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햇살 아래서의 격렬한 정사

무슨 소리일까. 아마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였던 모양이다. 유선의 눈이 슬며시 떠진다. 옆에는 그 남자가 있다. 어젯밤 그토록 격렬한 섹스를 나눴으니 이 시간에 자고 있는 게 정상이겠지. 덮고 있던 이불을 잠결에 걷어챘는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의 탄탄한 몸이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다. 억지로 만든 건 아니지만 타고난 몸매가 근육질인 그. 게다가 자신을 경악케 했던 그의 물건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그걸 보고 있자니 괜히 부끄러워지는 유선이다. 처음 그의 물건을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 저게 저렇게 클 수도 있는 거였나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두려웠다. 저 물건을 몸속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안 그래도 섹스를 두려워하는 유선에겐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건 오해였다. 물건이 크긴 했지만 자신은 그 물건을 뿌리 끝까지 받아주었지 않았던가. 그때 알았다. 진정으로 좋아하면 여자의 몸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알았다. 자신의 몸이 제대로 준비만 된다면 고통 따위는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렇게 유선은 섹스의 즐거움을 깨우쳤다. 그리고 그 날 이후 그와 함께인 순간엔 언제나 섹스를 즐겨온 것이다. 그러니 그의 물건은 유선에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마법의 지팡이인 셈이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준 마법의 지팡이를 보고 있자니 절로 손길이 간다. 아직은 자라지 않아 적당히 앙증맞기까지 한 그 물건을 슬며시 어루만진다. 어라, 그런데

이게 뭐지. 그 와중에도 그녀의 손길을 느낀 듯 지형의 물건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 하자 유선은 화들짝 놀라 손을 치우고 지형의 얼굴을 살폈다. 그가 깨지 않은 것으로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길이 다시 물건으로 갔다. 점점 커져가는 물건이 끄덕거리며 일어서는데 늘어져 있던 때와 다른 그 압도적인 위용에 숨이 콧 막혔다. 역시나 크다. 게다가 손아귀에 잡아보는데 정말 뜨겁다. 그리고 단단했다.

다시 한 번 자신의 스위치에 불이 켜진다. 그럼에도 자신의 눈빛이 몽롱하게 젖어가는 걸 유선은 느끼지 못했다. 조금씩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느새 그녀는 지형 옆에 바짝 다가앉아 있었다. 서서히 지형의 굵은 물건을 쥐고 어루만졌다. 손이 데일 듯한 그 뜨거움과 손안에서 힘차게 맥동하는 걸 느꼈다.

“아아...”

기묘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렇게 많이 만지고 그렇게 많이 맛보았음에도 볼 때마다 감동과 기쁨을 안겨준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지금도 그랬다. 홀린 듯 지형의 물건을 만지는 유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의 물건을 쥐 채로 살며시 손을 내밀어 지형의 가슴에 올려보고 유선은 단단한 근육질의 가슴이 참 넓고 따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평하게 잠든 지형의 얼굴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유선은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 절정의 순간에 그가 지어보였던 한껏 찡그린 얼굴을 떠올린 것이다. 자신의 동굴에 손아귀에 쥐어 있는 이 물건으로 격렬하게 박으며 사정의 순간을 맞이하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이 사랑스러운 남자. 유선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숙여 지형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보면 볼수록 새록새록 사랑스러운 기분이 들어 유선이 지형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지형의 눈이 떠졌다.

‘후다닥.’

눈을 뜨는 순간 유선의 얼굴이 보이자 정신이 번쩍 든 듯 지형이 몸을 일으키며 유선을 보았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유선도 깜짝 놀라 서로 마주 보았다. 재미있는 건 유선의 손이 여전히 그의 물건을 잡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잊었다는 것. 놀란 토끼마냥 자신을 바라보는 유선을 보자 지형은 그만 웃음을 흘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유선이 자신의 발기한 물건을 잡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건...”

자신이 지형의 물건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휴선이 슬며시 손을 떼더니 난감한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그러나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듯 얼버무리는 그녀. 그녀의 어색함이 방안을 채워간다. 물론 그 어색함은 휴선만의 몫이다. 지형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조금은 음흉하기까지 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지형이다. 그의 머릿속에 휴선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조명 아래서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의 유방이 눈앞에서 출렁이자 지형은 또 다시 들끓기 시작한다. 색다른 그녀의 나신에 지형의 다리 사이 물건이 점점 발기하고 있었다. 휴선 역시 눈앞에서 지형의 물건이 점점 거대해지며 묵직하게 솟아오르는 모습에 숨이 콧 막혀왔다. 지형이 휴선에게로 다가온다. 충실한 노예처럼 휴선은 그의 어깨를 안아갔다.

“빨아줄래?”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 치도 망설이지 않는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휴선은 그에게 복종당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휴선은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로 지형의 커다란 물건을 입안으로 품었다. 작은 아궁이에 커다란 고목나무를 통째로 쭈셔 박은 듯 휴선의 작은 입은 벌어질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입을 벌리고 지형의 물건을 입에 담는다. 지형의 물건이 휴선의 입을 가득 채우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지형의 입에선 작은 탄성과 비릿한 웃음이 번졌다. 잠시 그 상황을 즐기던 지형이 휴선의 입술을 찾았다. 휴선은 살며시 입을 열어주었다. 입안으로 지형의 혀가 들어오자 휴선은 그 혀를 빨았다. 휴선이 혀를 빨아주자 지형은 휴선의 입속으로 마음껏 자신의 혀를 들이밀었다.

휴선으로선 지금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다. 이런 백주대낮에 남자와 거리낌 없이 섹스를 즐기고 있다는 건 얼마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까닭이다. 그런 비현실감에 빠진 휴선의 어깨를 누르며 몸을 세우는 지형. 휴선을 눕힌 지형이 위로 올라오며 얼굴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휴선은 반듯하게 누워 몸을 누르는 지형의 육중함에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지형이 빙그레 웃었다. 휴선이 지형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어제는 좋았었니?”

“네.”

“뭐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말해봐. 듣고 싶어.”

이 남자는 때론 짓궂다. 몸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모자라 굳이 창피함을 주려하는 건지. 그래도 상관없었다. 이런 무례함조차도 그녀에겐 자극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유선은 등골이 짜르르 울리는 쾌감을 느꼈으니까. 자신의 대답을 기다리며 음흉하게 웃는 지형을 보는 유선의 눈빛은 더할 나위 없는 보물을 발견한 듯 젖어 들어갔다. 새삼 탄탄한 지형의 앞가슴을 더듬어 보았다.

“짐승... 같았어요. 너무 거칠어서.”

촉촉이 젖어 떨어지는 유선의 목소리에는 지형의 물건에 힘을 주는 마력이 숨어 있었다. 불끈거리는 물건이 유선의 사타구니를 누르자 유선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유선의 매혹적인 속삭임에 지형이 그녀의 입술을 빨아왔다. 유선의 입속으로 스며든 지형의 혀를 빨자 지형도 유선의 혀를 끌어다가 빨았다. 지형의 두툼한 손아귀에 유선의 유방이 가득 잡히며 주물러지자 유선의 허리가 휘청거렸다.

“하아. 빨아줘.”

지형이 속삭이자 유선이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뜨거운 입안으로 커다란 지형의 물건이 유선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귀두가 유선의 입안 저 끝에까지 닿자 지형의 입에서 묵직한 탄성이 흘렀다.

“흐음, 좋아. 착하네. 우리 유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이다. 유선이 더 크게 입을 벌리고는 그 커다란 지형의 물건을 한껏 빨아들인다. 그러자 지형의 커다란 물건은 작은 유선의 입속으로 한 치도 남김없이 모습을 감췄다. 유선은 온몸에 이는 전율에 떨어졌다.

“흐음, 좋아.”

한동안 유선의 입술과 혀를 즐기던 지형이 거침없이 유선의 유방을 주무르면서 아래로 내려가더니 배꼽을 후비고 유선의 사타구니로 향했다. 유선이 다리를 꼭 오므리

고 있자 지형이 강한 힘으로 그녀의 다리를 잡고 벌려갔다. 지형이 돌변해서 강하게 그녀의 다리를 벌리자 유선은 급격히 흥분이 밀려왔다. 이런 거칠음을 그녀는 원하고 있었다. 예전의 남자들에게서는 맛볼 수 없었던 강한 사내의 매력 말이다.

“너무 맛있어.”

이런 음탕한 말조차 유선에게는 쾌락 그 자체다. 활짝 열린 유선의 사타구니에 얼굴을 파묻으며 지형이 말하자 유선은 소름이 오싹 할 정도로 자극이 올랐다.

“하아. 안돼요. 아직 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동굴에 어제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은 유선이 힘겹게 지형의 머리를 밀어 보지만 지형은 꿈쩍도 안했다.

“하음.”

지형의 혀가 자신의 동굴을 훑아주니 유선의 허리가 저절로 떠올랐다. 유선의 동굴에서 스며 나오는 애액이 지형의 입안으로 계속 넘어갔다. 너무나 짜릿하고 자극적이라 허리가 설 새 없이 들렸다.

“하음. 너무해. 흐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자꾸 경직되고 엉덩이가 들썩거리는데 몸이 제어가 되지 않았다. 유선의 동굴에서 설 새 없이 애액이 넘쳐나고 지형은 꿀물을 마시는 듯 그녀의 동굴을 빨았다. 지형의 혀가 날름거리며 질을 핥고 세워져 질구를 찌를 때마다 유선의 몸이 작살 맞은 듯이 튕겨 오르며 퍼덕거렸지만 강하게 누르는 지형의 힘에 제압되었다. 맘껏 몸을 통겨 올리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자 유선은 안타까움에 미칠 것만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이 몰렸다.

“흐음. 어떡해.”

유선의 교성이 지형의 욕정을 더욱 부채질했다. 혀 대신 지형의 손가락이 유선의 질을 뚫고 들어갔다.

“하악.”

유선의 눈이 치켜떠지며 허리가 들썩였다. 손가락이 굽어서 그런지 물건이 박힌 것 같은 착각이 들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안에서 살짝 구부러진 손가락이 유선의 지스팟

을 굶었다. 날카로운 쾌감이 번개처럼 등줄기를 치달리자 유선의 몸이 다시 펴덕거렸다.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이런 식의 자극은 경험이 없는 그녀라서 모든 것이 낯설고 자극이 너무 강했다. 지형 역시 자신의 손가락이 들어가자 무섭게 조이는 유선의 질속 감촉에 몸이 떨려왔다. 어젯밤에 물건을 잘라 먹을 듯이 조였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제발. 어서요. 흐응.”

유선의 동굴을 손가락으로 쭈시며 그 안의 느낌을 즐기던 지형이 고개를 들고 유선을 보고 웃으며 위로 올라왔다. 지형의 육중한 몸을 느낀 유선이 풀어진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유선은 반쯤 풀린 눈으로 지형을 보았다. 그의 혀놀림과 손가락 애무에 이미 반쯤은 맛이 가버린 듯했다. 유선이 손을 들어 지형의 얼굴을 섬세하게 어루만졌다.

“참 예뻐.”

지형의 말에 유선의 얼굴에 미소가 고였다. 그리고는 곧 유선이 밑으로 손을 내려 지형의 물건을 잡았다.

“내 안으로 들어와줘요. 빨리요.”

스스로 남자의 물건을 원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었을까. 결단코 한 번도 없었다. 이래서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정복하는 남자 복종하는 여자

애꿎는 그녀의 부탁에 지형이 몸을 움직여 잔뜩 발기한 물건을 유선의 동굴에 가져갔다. 뜨거운 물건의 침단을 느낀 듯 유선의 동굴이 움찔거렸다. 그녀의 동굴 입구에서 새로운 애액이 샘솟았다. 스스로 한껏 다리를 벌린 유선이 두 눈에 기대를 가득 안고서 지형을 올려다 보았다. 두 팔을 지형에게 뻗으며 애원하듯 속삭였다.

“넣어줘요. 어서...”

그런 유선을 내려다보며 지형은 서서히 물건을 밀어 붙였다. 여린 동굴구멍이 급격히 확장되어 갈라지며 굵은 귀두를 삼켜갔다.

“으으으.”

자신의 동굴이 벌어져 지형의 물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듯 유선이 신음을 흘렸다. 흥건히 젖은 동굴이 짙 벌어지며 지형의 물건을 삼켜가고 서서히 유선을 짊어 누르며 물건을 밀어 넣는 지형은 새삼 그녀의 동굴이 주는 긴축감에 몸이 떨려움을 느꼈다. 사방에서 졸깃한 속살이 물건에 달라붙어 조이면서 안으로 빨아들이는 듯했다. 물건이 점점 깊이 들어오면서 유선은 빠근한 충만감에 몸을 떨었다. 조금씩 자기가 지형에게 범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느껴갔다. 지형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유선은 쾌감을 만끽했다.

“하음. 좋아. 흑. 너무 커. 하아.”

경직된 유선의 허벅지살이 푸들거리며 떨렸다. 지형의 물건이 한 치 한 치 들어오는 동안 유선의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굽어갔다. 지금 지형은 뿌듯한 정복감을 맛보는 중이었다. 완전히 유선의 동굴 속을 물건으로 채운 지형이 더할 나위 없이 빠듯한 조임을 물건 전체로 느껴갔다. 빈틈없이 동굴 속을 가득 지형의 물건에 너무나 빠근함을 느낀 유선도 어젯밤의 기억을 되살렸다. 더 큰 거 같고 더 단단한 거 같았다. 그리고 너무나 뜨거웠다.

“하아. 좋아. 자기가 내 안에 가득해.”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유선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지형의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워보였다.

“하아. 키스해주세요.”

지형이 얼굴을 숙이며 유선의 입술을 훔쳤다. 감미로운 키스가 이어졌다. 유선은 지형에게 스스로 몸을 열어주고 그의 강인함에 서서히 지배되어갔다. 유선이 그의 손을 이끌어 유방을 쥐어주자 지형은 거칠게 주물렀다. 그녀의 깊은 곳에 억압시켰던 욕망이 남김없이 뿜혀 나와 버렸다. 자신을 짊어 누르는 지형의 육중함 무게감, 굽고 단단한 물건이 주는 강한 힘이 그녀를 지배해 오는 것이 오히려 좋았다. 이런 복종감을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난날이 못내 아쉬웠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었다. 앞으로 언젠가 이런 복종감에 치를 떨며 행복해할 수 있을 테니까.

유선 스스로 복종하며 들어오자 지형은 감동한 듯 그녀의 동굴에 깊이 박은 물건을 서서히 움직여갔다. 점점 강하게 힘차게 움직이는 물건에 유선은 온몸이 녹아내리는 쾌감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다. 또 다시 아득한 오르가즘의 파도를 연속으로 넘었다. 그 육중함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고 지형의 커다란 물건이 기운차게 자기 집인양 유선의 동굴을 헤집고 들락거리니 치밀어 오르는 고통 때문에 말이 이어지질 않았다.

“아욱. 흐욱.”

지형이 자신을 짊어 누르며 거칠게 밀고 들어오자 고통이 밑에서 확 치솟는 바람에 그만 그를 밀어내던 팔이 지형의 등을 껴안고 말았다. 다리가 찢기는 듯한 아찔한 고통이 치밀어 머리를 도리질 치는데 후욱 하는 뜨거운 숨결과 함께 지형의 입술이 그녀의 입을 덮쳤다. 갑작스럽게 강하게 찢려 들어오는 묵직한 물건에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터트리며 입을 벌렸는데 그의 두툼한 혀가 사정없이 밀려들었고 유선은 고통 속에 지형의 혀를 정신없이 빨고 말았다. 동시에 길고 가는 손가락이 세워지며 손톱으로 지형의 등을 찌르고 할퀴어 보지만 강철 같은 근육이 도로 튕겨낼 뿐이었다.

긴 머리카락이 흩날리도록 미친 듯 도리질 치며 한껏 벌린 유선 입에서 실 새 없이 신음성이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는 강렬한 고통이 동굴에서 전신으로 퍼져간다. 숨이 턱턱 막히고 위에서 혈떡거리는 지형의 몸짓에 이리저리 인형마냥 흔들릴 뿐이다. 실 새 없이 몰아치는 지형의 펌프질에 유선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오고 그녀의 지적이고 아름다운 얼굴이 잔뜩 찌푸려지고 잠시 빛이 들어오던 눈이 다시 초점을 잃고 흐려져 갔다. 마치 어젯밤처럼.

“너무 깊어. 아앙.”

지형이 그녀의 한쪽 다리를 잡아 올리며 옆으로 누워 퍽퍽 소리가 나도록 쳐대자 유선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동굴을 점령한 지형의 물건은 인간의 것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굵고 단단했으며 무엇보다 동굴이 데일 정도로 뜨거웠다. 불에 달군 강철방망이 같은 것이 실 새 없이 들락거리니 동굴이 화끈거리고 빠근하게 차올라 그 가득함에 미칠 것만 같았다. 자궁까지 쿵쿵 울리는 듯한 박력 있는 펌프질에 유선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들썩이고 둔부를 돌려가며 지형을 향해 받아치고

있었다. 끝없이 밀려드는 고통과 쾌감에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아득한데 지형의 펄프질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다.

“학학. 그만. 나 죽을 것 같아.”

유선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불타버리는 듯하고 녹아내릴 것만 같아 미칠 지경이었다. 미친 듯이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 유선의 머릿속은 산소가 모자란 듯 하얗게 변해갔다. 그러나 지형은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유선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란 사실을. 유선은 고통조차 쾌락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몸을 지닌 여자였다. 이런 여자를 몰라보고 방치하다시피 버려둔 전 남편이란 작자가 바보 같게만 느껴질 정도였다. 자신의 이런 공세를 감당해줄 여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전에 겪어보았던 여자들은 견뎌내질 못하고 줄행랑을 쳤지만 유선은 달랐다. 말은 이렇게 했어도 몸은 그러질 않았다. 오히려 더 그를 부채질하기까지 했다.

지금도 그랬다. 그만 하라는 말과는 달리 몸은 오히려 더 밀착해오는 그녀. 그녀의 간절함을 안다는 듯 지형은 더욱 강하게 몰아쳤다. 지형의 물건이 퍽퍽 소리를 내며 질러 들어오고 유선의 찰진 둔부에 그의 하체가 부딪힐 때마다 철썩거리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들락거리는 틈새로 그녀의 애액이 튀었다. 참으로 난잡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즐기고 있었다. 실제로 유선은 거칠고 힘차게 밀려드는 물건이 너무 좋았다. 남자의 물건이 이렇게 깊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이토록 쾌감과 고통을 준다는 사실에 온몸으로 놀라고 있는 유선이었다.

“하악. 나... 흐음.”

한순간 극도의 오르가즘이 밀려와 유선의 질벽이 조여들었고 안쪽에서 뜨끈한 애액이 솟구쳤다. 급작스런 오르가즘으로 인해 유선의 몸이 널브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은 동작을 멈추지 않았다. 지형 자신도 오르가즘이 멀지 않았던 까닭이다. 유선의 눈에 혈떡거리는 지형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얼굴 가득 땀이 비 오듯 하는 것이 보였다. 그에게 다가온 절정의 그림자가 어슴푸레하게 느껴지자 유선은 지형의 등을 꼭 끌어안았다. 이 공간에 남은 거라곤 삐걱거리는 침대의 비명과 질척하면서도 찰진 육

중한 소리뿐이다. 시트가 격렬하게 요동치며, 침대 기둥은 무너질 듯 삐걱, 삐걱 비명을 지른다. 자신의 허반신에서 울려 퍼지는 둔탁하고 질척한 소리는 어느 순간 절정을 맞이하는 짐승에 포효와 함께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밀착한다.

“크윽.”

한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한마디 외침뿐이었지만 유선은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몸속에 끈적끈적한 우윳빛 정액을 뿌려놓을 거란 사실을. 지형의 동작만큼이나 강렬하게 자신의 몸 구석을 때리는 정액의 용출, 그 강렬한 감각을 느끼며 지연은 쾌락의 파도에 휩쓸려 허리가 튕겨져 올라간다. 절정에 오른 그녀는 애처롭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커다란 욕망의 덩어리를 모두 받아내고 있는 유선은 그 뜨거움과 절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며 제정신을 차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자신의 아랫배에 쌓이는 뜨거운 액체를 느끼며 그를 감싸 안는다. 조금 전까지 야수이던 그 남자는 이제 순한 양이 되어 자신의 몸 위에 얹어져 있다. 이 순간이 좋다. 어쩌면 자신이 섹스를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유선이다.

그의 호흡이 조금씩 규칙적으로 변해간다. 그의 등 위에 피어난 햇살이 눈부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눈부신 건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이 남자의 미소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법한 애정을 담아 자신을 바라보는 이 남자. 이 남자의 것이라면 뭐든 좋다. 이 남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든. 그렇게 유선은 진짜 여자가 되어 간다. 그리고 진짜 섹스를 배워간다. 그녀에게 불감증은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일 뿐이다.

김민지 임팩트화보집



도서명 : 김민지 임팩트화보집
출판사 : 주식회사 임팩트크루
저자 : 주식회사 임팩트크루
크기 : 225×265
쪽수 : 152page
출간일 : 2019년 12월 11일
바코드 : 977-2672-079-004
대상/타겟 : 20-40대 남성
정가 28,000원

온라인서점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인터넷교보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NUDE STORY ④

남자들이
마사지 받는 이유

남자들이 마사지 받는 이유

한 술 더 떠 그는 가슴을 두 손으로 비비면서 마사지를 해왔다. 참을 수 없는 쾌감이 나를 덮쳐왔다. 어느새 숨이 가빠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하반신 쪽에 몸을 지탱하고 있던 그에게서 익숙한 딱딱함이 느껴졌다. 설마 했지만 역시나였다. 그건 틀림없이 남자의 물건이 전해주는 질감이었으니까. 이 남자도 내 상태에 반응한 것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이 손길을 거두게 하고 화를 내야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사지사도 어차피 남자니 지극히 당연한 본능일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딩동. 문자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음이 경쾌하다. 뭘까 싶어 봤더니 오빠의 문자다.

‘일주년맞이 이벤트가 왔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얼마 전부터 일주년 노래를 부르더니 뭔가를 준비한 모양이다. 괜히 기대된다. 명품 백? 그게 아니면 근사한 이벤트라도 있는 걸까? 바로 전화를 건다.

“오빠 뭘데 뭘데?”

“무얼 것 같아?”

“음, 가방? 아니면 근사한 레스토랑이라도 예약했어?”

“땡. 그것보다 더 멋진 거.”

“뭘데? 애간장 태우지 말고 그냥 말해주면 안 되나염?”

최대한 애교 섞인 말투로 그의 대답을 기다린다. 조금 더 뜬을 들이던 그가 입을 떼는 순간 난 사무실 동료들이 놀랄 만큼의 환호성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태국 여행. 것도 특급 호텔에서의 여행. 좋지?”

“와우, 오빠 최고. 언제 가?”

“당연히 우리 휴가 때지. 이주 후. 이 정도면 준비하는데 무리 없지?”

“당근이지. 저녁에 만나.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하자.”

오빠와 사귀지 1년. 그는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준비했다. 해외여행이 처음은 아니지만 오빠와 함께 떠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던 나는 그 2주 동안 더없이 행복할 수 있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하루하루 태국을 꿈꾸며 기다린 나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첫날을 호텔에서 신명나게(?) 보낸 우리는 다음날 본격적인 관광에 나섰다. 중간 중간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신기한 구경도 하며 하루를 보내고 나니 몸이 파김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역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다시금 호텔에 도착한 우리. 이제 오빠와 어제 했던 일을 반복해야지 하는 순간이었다.

“너 피곤하지?”

“응. 완전. 왜?”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뭔데?”

“마사지. 태국 하면 마사지의 나라잖아. 우리나라에서도 타이 마사지 많이 봤지. 근데 그건 흥내만 낸 거고 진짜 마사지는 여기서 받아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태국 마사지의 위력을 보여줄게.”

“나가야 되는 거 아냐? 좀 귀찮은데.”

“또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우리 방으로 출장 올 거야. 마사지 받고 나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릴 거야. 기대하시라.”

이런 배려를 보았나. 사실 한국에서도 가끔씩 마사지를 받긴 했다. 그래도 태국 본토의 마사지와는 달랐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여자가 마사지해주는 걸까?

“근데 오빠, 마사지사는 여자야?”

“왜? 여자이기를 바라?”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나.”

“뭘 모르는구나. 원래 마사지는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해주는 거래. 그래야

제대로 된 기운을 받는다고.”

“그런가? 그래도 남자 손에 몸을 맡기는 건 좀.”

“괜찮아. 내가 옆에 있는데 어때.”

“그럴까. 알았어.”

우리는 잠시 후 들어올 마사지사를 기다리면서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들어왔고 익숙한 듯 준비를 마친 그들은 나는 침대로, 오빠는 바닥에 대형 타월을 깔고 그곳으로 인도했다. 이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일이었다. 얼마나 시원할까.

그 남자의 손길에 젖어가다

이건 좀 야릇한데. 우리는 그들이 건네준 종이 팬티로 갈아입어야만 했다. 물론 위쪽은 아무 것도 없었고. 조금 창피하긴 했지만 다들 그러는 거니 그러려니 했다. 어차피 하루 보고 말 사람이니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오빠와 난 종이 팬티를 입고 침대에 몸을 누였다. 침대에 얼굴을 파묻기 무섭게 남자 마사지사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는 내 옆에 오더니 먼저 팔을 잡고 목뒤를 지압하듯이 주물러 나갔다. 그러면서 나의 팔은 자신의 옆구리에 딱 끼고 내 어깨와 목 사이를 쪽 밀면서 팔을 당기듯이 잡아끌었다. 아, 시원해. 처음에 가졌던 약간의 불안을 한순간에 쫓아내주는 손길이었다. 잠깐 고개를 돌려 오빠를 보니 오빠 역시 시원한지 나지막하게 탄성을 토하고 있었다.

그렇게 팔과 어깨를 주무르던 그가 갑자기 침대위로 올라오더니 내 몸 양 옆 침대를 발로 밟고 살며시 쪼그리고 앉았다. 마치 말을 타는 것 같은 동작이었다. 본격적인 마사지가 시작되려는 모양이었다. 푹푹 등을 주무르는 그. 정말 시원했다. 이래서 다들 태국에 오면 마사지를 받는 모양인가 보다. 그때였다. 그 남자가 내 엉덩이 위에 아예 걸터앉았다. 솔직히 조금 놀랐다. 얇은 종이 팬티 위에 그의 몸이 느껴진 까닭이다. 조금 쑥스러웠지만 어차피 마사지려니 했다. 예상대로 그는 아무런 사심 없이 내 날갯죽지와 허리 부분을 오가며 무심하게 마사지를 이어나갔다.

문제는 무심한 그와는 달리 내가 조금씩 야릇한 감정에 빠져들었다는 점이었다. 아무

래도 맨살을 어루만지는 억센 손길에 초연할 수만은 없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마사지의 묘미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갈수록 커져갔다. 그가 내 허벅지에 걸터앉아 엉덩이 꼬리뼈 부분을 바깥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돌려오자 더욱 그랬다. 시원하긴 했지만, 엉덩이 살이 양쪽으로 벌어지자 항문과 그곳이 자극되었기 때문. 서서히 커지는 쾌감이 좋으면서도 민망했다. 무안함을 이기기 위해 오빠를 바라보며 넌지시 말을 건넸다.

“좋아?”

“응. 완전 시원해.”

오빠는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반응해왔다. 그걸 보니 오히려 내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그냥 그러려니 하자 다짐하며 마사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손길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란 건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가 이번에는 허리부분으로 올라와서 방향을 바꿔 앉았다. 그러더니 내 허리를 축으로 허벅지를 아래로부터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닌가? 다리가 들려지자 여자의 예민한 부위가 함께 자극되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새 그곳이 조금 젖어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이런 게 마사지인 건가? 솔직히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남자의 맨손이 맨살을 비벼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한 것인지 모르겠다.

창피했다. 그러나 그만큼 좋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다. 가급적 무심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다. 쉽지 않았다. 어깨를 당기는 그의 손이 내 가슴 윗부분을 스치고 지나가자 더욱 그랬다. 엉덩이를 만질 때도 그랬지만 가슴을 스치듯 지나갈 때는 그야말로 짜릿했으니 말이다. 어두운 조명 아래 옆드려 있었기에 티는 안 났지만 종이 팬티 앞이 젖어 들어갔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이걸 마치 오빠가 애무해 줄때의 기분이라는 게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낯선 남자의 손길에 이래도 되는 걸까 싶었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런 맛에 마사지를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그럭저럭 용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건 순진함에서 비롯된 오해였다. 그가 일어서더니 내 등을 손으로 툭툭 칠 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나는 얼굴을 돌려 그를 쳐다봤고 그는 손짓으로 돌아누우라는 표시를 해왔다. 이 상태에서 돌아누우라고? 팬티가 젖어있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란 말이야. 그건 정말 못하겠다 싶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호를 보내왔다. 조명이 어두우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안 돌아눕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도 같아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반듯하게 누웠다. 다행히 그의 시선은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도 창피한 건 어쩔 수 없어 눈을 찔끔 감고 가만히 기다리니 이 남자 다시 내 허벅지위에 살며시 걸터앉는다.

‘미치겠다. 나보고 어찌라는 거냐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나도 모르게 신음 소리를 낼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드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태평하게 마사지를 즐기는 오빠를 보니 괜히 심보가 치밀어 올랐다. 자기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의 손에 이렇게 흥분하고 있다는 걸 알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괜한 오기마저 치솟았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내 생각엔 아랑곳하지 않는 그는 자신의 두 손을 어깨와 유방의 중간쯤에 밀착시키더니 바깥쪽으로 해서 어루만져왔다. 정확하게는 어루만진 게 아니라 마사지를 한 거였지만 난 그렇게 느껴졌다. 어느새 젖꼭지가 뻗뻗하게 자라나기까지 했다. 이건 틀림없는 흥분이었다.

그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몸 아래쪽 어딘가에서 물 흐르는 게 느껴졌으니 더는 부인할 수도 없었다. 이런 야릇함을 느끼게 될 줄이야. 한 술 더 떠 그는 가슴을 두 손으로 비비면서 마사지를 해왔다. 참을 수 없는 쾌감이 나를 덮쳐왔다. 어느새 숨이 가빠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하반신 쪽에 몸을 지탱하고 있던 그에게서 익숙한 딱딱함이 느껴졌다. 설마 했지만 역시나였다. 그건 틀림없이 남자의 물건이 전해주는 질감이었으니까. 이 남자도 내 상태에 반응한 것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이 손길을 거두게 하고 화를 내야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사지사도 어차피 남자니 지극히 당연한 본능일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내가 망설이는 와중에도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 그의 손은 내 배꼽 주위를 떠다니고 있었으니까. 장 마사지 개념인 모양인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젖어있는 내 비밀이 있었기에 마냥 냉정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게 문제였다. 나도 모르게 자그마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헉, 혹시 오빠가 이 소리를 듣지는 않았겠지. 서둘러 고개

를 돌려보니 눈을 감고 마사지를 받고 있는 오빠가 보였다. 다행히 듣지는 않은 모양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러다간 정말 신음이 터질 것 같았다.

“허억.”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가 내 허벅지 안쪽의 예민한 곳을 마사지한 때문이었다. 이 건 말 그대로 애무였다. 허벅지를 주무르다 순간 스치듯 내 그곳 둔덕을 치고 나가는 그의 손길이 느껴지자 난 거의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오빠만 옆에 없었다면 그냥 그곳을 만져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난 흥분하고 있었다. 그렇게 고통과 쾌락의 시간이 흘렀다. 난 이미 포기 상태였다. 그때쯤 그가 손길을 멈추고 얼굴에 무언가를 가져왔다. 간신히 정신을 차려 보니 그건 안대였다.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좀 이상했다. 마치 핫팩처럼 물컹물컹한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손으로 비벼보니 약간 따스해지는 느낌이었다.

그걸 착용하니 따스한 기운이 눈으로 전해졌다. 남자가 다시 나를 돌아눕게 했다. 잠시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역시 걱정스럽긴 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난 안대를 하고 그 남자의 신호에 따라 손을 머리위로 쪽 편 채로 옆드려 누웠다. 눈 주위가 따스해지자 마치 꿈속에 빠지는 듯한 편안함이 밀려 왔다. 잠시 그의 손길이 멈췄다.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는지 약간의 소음이 일어났고 난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때 난 또 다른 쾌락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앞서 받았던 그의 손길은 여자의 성감대를 자극하는 절묘함을 맛보여 주었던 까닭이다. 마사지란 게 이토록 짜릿한 것이란 걸 왜 몰랐을까 하는 자책마저 들 정도였다.

잠시 후 그의 손이 다시 내 몸으로 왔다. 앞서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었지만 내가 워낙 흥분해 있어 그런 건가 싶었다. 그래도 좋은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내 척추에 손을 대고 정말 부드럽게 허리 아래 꼬리뼈부분까지 지압을 해줬다. 눈으로 느끼는 따뜻함과 몸으로 느끼는 부드러운 손길이 나를 몸서리치게 했다. 정말 황홀했다. 그러기를 서너 번, 그는 이번엔 엉덩이에 다시 손바닥을 놓고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살을 잡아 돌린다. 그 덕에 다시 내 그곳과 항문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방금 전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다시금 전류가 흘렀다. 이젠 그 손길에 조심스러움조차 없었다. 어느새 그의 손이 여자의 비밀스러운 부위 주변을 둘러온 것. 미칠 것 같았다.

WWW.XSAVA.XYZ & WWW.SPICYMAGS.XYZ

이를 양다물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의 손바닥이 종이팬티 아래로 들어와서 엉덩이 맨살을 마사지하는 게 아닌가. 이걸 너무 노골적이었다. 거부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 조금만 더 움직이면 그곳을 만져올 거란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건 그 손길이 너무도 좋았던 까닭이었다. 그때 내 허벅지에 살포시 걸터앉는 그. 그러자 불끈 솟아오른 남자의 물건이 여실히 느껴졌다.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남자로서 흥분하고 있었다. 엉덩이 계곡 사이에 남자의 물건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느껴졌으니 장담할 수 있었다. 그 말은 곧 그가 반바지와 팬티조차 걸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었다.

이 남자 미친 걸까? 바로 옆에 내 남자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조명이 어두웠다고는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이건 성희롱, 아니 성폭행이었기 때문이다. 난 몸을 일으키고는 안대를 벗었다. 그와 동시에 ‘스톱’이라고 분명하게 외쳤다. 그의 뺨을 갈길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게 뭐지?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를 만지던 손은 오빠의 손이었다. 순간 멍해졌다. 그런 내 표정을 보던 오빠가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속았지?”

그제야 상황이 이해가 갔다. 내 눈에 안대를 씌운 직후 마사지사들은 문을 나선 것이었다. 그리고 오빠가 마사지사를 대신해 나를 쓰다듬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손길이 좀 어색했던 것. 일종의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오빠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야, 이성호, 깜짝 놀랐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뭐? 만져도 좋아하기만 하더구먼.”

“아니거든. 난 정말 그 남자가 옷을 벗고 온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알았어. 인정. 그나저나 이벤트는 맘에 들었어?”

“전혀. 담부터 이러면 죽는다.”

“흐음. 그건 그렇고 우리 하던 것 마저 할까? 지금부터는 오빠가 마사지 해줄게. 찢하게, 하하하.”

놀란 건 놀란 거고 아직 내 몸은 달아오른 상태 그대로였다. 오빠 말대로 이걸 해결해야 하는 거겠지. 손을 까딱 움직여 내 전속 마사지사를 움직이게 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할 걸.

나를 젖게 한 깜짝 이벤트의 정체

우리는 함께 샤워실로 향했다. 마사지를 받느라 땀에 젖었기 때문. 오빠는 알몸인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었고 나는 오빠의 허리를 감싸 안고는 나란히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 꼭지를 들어 물줄기로 서로의 몸을 적셔갔다. 그리곤 비누를 가져와 오빠를 씻겨주었다. 머리카락부터 목, 가슴, 배로 내려와서는 조금은 수그러든 물건에 조심스럽게 비누칠을 했다.

“흐음.”

오빠의 남성에 비누를 칠하던 내 손톱이 귀두를 조심스럽게 자극하자 오빠는 온 몸을 부르르 떨며 내 머리를 자신의 사타구니 쪽으로 끌어 당겼다. 나는 비누로 범벅이 되어있는 오빠의 남성을 먼저 물로 씻고 입에 머금었다. 내 입이 자신의 물건을 머금자 몸을 떠는 오빠를 보며 그 행위에 열중했다. 조금씩 내 입안에서 자라나는 그 물건 덕에 숨쉬기가 버거울 지경이었다. 내가 숨쉬기 힘들어하자 물건을 꺼내는 그.

“하아.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

비누는 다시 오빠의 손으로 건네져서 이번에는 내 몸에 비누거품이 칠해지기 시작했다. 오빠는 내 온 몸에 비누를 칠한 후 맨 마지막으로 사타구니에 비누를 칠하기 시작했다. 갈라진 꽃잎 위쪽에 있는 클리토리스가 오빠의 손과 비누에 의하여 자극되기 시작하자 나는 무릎을 오므리고 상체를 오빠의 가슴에 묻었다. 오빠는 한 손으로 미끈거리는 내 어깨를 끌어안은 채 집요하게 내 클리토리스를 자극했고 내 사타구니는 더 큰 자극을 기대하는 듯 벌어지기 시작했다. 밀려오는 자극을 막아내느라 오빠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러자 오빠는 나를 욕실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자신의 가슴으로 내 가슴을 짓누르자 비눗물로 범벅이 된 내 가슴이 옆으로 빠져 나왔고 내 클리토리스는 계속 자극되고 있었다.

“하아, 좋다.”

내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걸 깨닫자 오빠는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고는 내 꽃잎을 가르며 찢어 넣고 있었다.

“하앙, 어떡해.”

오빠의 손가락이 내 몸을 파고들자 난 다시금 흥분에 사로잡혀야만 했다. 그런 모습은 즐기는 듯 나를 희롱하던 오빠는 곧 자세를 바꿨다.

“뒤에 있는 수건걸이 잡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욕실에서 사랑을 나눌 때 종종 하던 자세였으니까. 난 곧 수건걸이를 잡고는 몸을 뒤로 향했다. 이제 오빠가 뒤에서 들어올 것이다. 내 몸에 밀착하는 남자가 느껴지고 난 후 그의 물건이 내 몸속으로 밀려들어왔다.

“허억. 좋아. 하응.”

묵직한 포만감이 전신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한껏 자라난 남자의 물건이 내 꽃잎 속에서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앞선 애무로 젖어있던 내 꽃잎이 요란한 소리를 내뿜기 시작했고 오빠의 움직임에 따라 내 몸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절로 터져 나오는 신음.

“하앙. 오빠.”

낮선 곳에서의 사랑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요란한 신음이 흘렀고 그에 맞춰 남자의 움직임은 더 격렬해졌다. 평소보다 더 격렬했던 까닭에 몸을 지탱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결국 우리는 잠시 멈추기로 했다.

“나, 팔 빠지는 줄 알았어.”

“미안. 너무 흥분이 돼서 조절이 안 됐어. 힘들었지?”

“뭐 나도 그랬는걸. 그래도 좋았어.”

우리는 남은 비눗기를 물로 행구고 서로의 몸을 닦아주었다.

“이제 나갈까 오빠?”

욕실에서 나왔다. 그리곤 백 미터 달리기를 서둘러 침대로 향했다. 둘 다 너무 급했던 게 사실. 몇 번에 걸친 애무 아닌 애무로 인해 한시가 급했다. 내가 침대에 몸을 눕히

자 오빠가 서둘러 내 몸위로 올라왔다. 그 덕에 오빠의 상체가 다시 내 상체에 밀착되어 왔고 이윽고 들어 올려진 내 허벅지 아래로 크게 벌어져 있는 꽃잎 아래로 오빠의 남성이 와 닿았다.

“오늘 평소보다 더 큰 거 같아.”

“네가 평소보다 더 예뻐서 그런가보지.”

“흠, 거짓말 같긴 해도 듣기는 좋은데.”

“아니거든.”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내 꽃잎에 가해지는 남성에게 의한 압박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언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 예상은 곧 현실로 다가왔다. 오빠가 조금씩 물건을 밀어 넣은 것.

“하아, 진짜 오늘은 더 큰 게 맞나봐. 평소보다 더... 하앙.”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의 남자가 내 몸속에서 유영을 시작한 까닭이었다. 시작은 부드러웠지만 곧 거세져가는 오빠의 몸짓은 나를 빠른 속도로 쾌감 속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오빠가 힘껏 밀어댈 때마다 침대가 삐걱거리고 있었다. 이미 우리는 커다란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오빠가 움직일 때마다 나도 엉덩이를 흔들며 오빠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었다. 곧 내 꽃잎에서는 애액이 마구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 애액은 허벅지를 타고 종아리 쪽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흥건해졌다. 그래서였을까. 질척거리는 소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다. 이 음탕한 소리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징표이겠지.

“하아, 너무 뜨겁다. 나 쌀 것 같아.”

“흐응. 아직 안 돼. 일단 나와봐.”

너무 큰 자극 때문인지 평소보다 빠른 사정감을 호소하는 오빠였다. 그러나 그러기엔 내가 너무 아쉬웠다. 일단은 내 몸 밖으로 나오기를 유도했다. 몸 밖으로 나온 남자의 물건은 금세라도 터질듯 꼬덕거리고 있는 걸로 봐선 그 말이 사실인 듯 했다.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불행히도 달궈진 내 몸이 그걸 허락하진 않았다는 게 문제였지만. 난 반사적으로 오빠의 물건을 입에 머금고는 흥건하게 묻어있는 애액을 말끔

히 빨아먹고 있었다. 아직 채 흥분이 가시지 않은 순간에 맞게 된 자극으로 인해 오빠는 몸서리를 쳐야만 했다. 내 이가 오빠의 귀두를 잘근잘근 씹어대면서 혀끝으로는 요도구 끝 부분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억, 숨 돌릴 시간은 줘야지. 이건 반칙이야, 허억.”

반칙이건 아니건 상관없었다. 그만큼 나도 급했으니까. 오빠는 자신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무를 이어가는 나를 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고개를 흔들어도 오빠의 표정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애무가 이어졌고 그렇게 애무가 끝이 났다. 남은 건 하나였다. 내가 자신에게서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오빠가 몸을 겹쳐왔다. 그리곤 허리를 움직여서 거대하게 받기된 남성을 내 작은 꽃잎 속으로 돌진시켰다. 그러자 내 꽃잎에서는 ‘푸욱’ 소리를 내뿜으며 오빠의 남성을 받아들였고 이어서 내 신음이 터져 나왔다.

“흐응.”

나는 꽃잎을 헤치고 들어온 오빠의 남성으로 인해 짜릿함을 토해내야만 했다. 텅 비어있던 꽃잎 속이 오빠의 남성으로 꽉 들어차는가 싶더니 이내 내 꽃잎을 찢을 듯 파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너무 세.”

하지만 오빠의 허리는 오히려 움직임을 점점 더 빨리 하고 있었다. 자지러지는 내 신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치 신 내린 무당이 더욱 빠르게 춤을 추는 듯 느껴질 정도였다. 점점 커지는 쾌락을 이기기 위해 두 손으로 오빠의 양쪽 어깨를 움켜잡았다. 오빠의 남성은 내 꽃잎 속으로 무지막지하게 박혀 들어갔다가 빠져나갈 때에는 내 꽃잎 속에서 완전히 빠져 나왔고, 빠져 나온 오빠의 남성은 다시 내 꽃잎을 찢어놓을 듯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나는 쾌감에 몸서리쳐야만 했다. 조금 천천히 해도 좋을 텐데 이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남자는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했다. 난 상체를 옆으로 뒤틀면서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잡고 희열의 도가니로 빠져들어 가고 있었다. 오빠의 남성이 계속해서 내 꽃잎 속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자 내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고 상체는 여전히 이리 저리 뒤

틀리면서 꽃잎 속의 자극을 온 몸으로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오빠, 나 죽어. 하앙.”

나 역시 오르가즘에서 멀지 않았음을 깨달은 그는 더욱더 거세게 몰아쳤다. 그 덕에 나는 고개를 뒤로 꺾은 채 고개를 흔들어서 머리카락을 이리 저리 훑날리며, 온 몸을 뒤틀어야만 했다. 나도 그도 머지않았다. 마지막을 체감한 우리는 거세게 서로의 몸을 부딪혀갔고 이윽고 서로가 신음을 토해냈다.

“오빠 나...”

“나 한다. 크윽. 수정아. 허억.”

마지막임을 알리는 오빠의 말을 들은 나는 오빠의 목을 휘어 감고 있던 두 팔에 더욱 힘을 주어 끌어안아서 마치 오빠의 목이 으스러질 정도로 끌어안았다. 그러자 오빠는 온 몸에 전율을 느끼며 부르르 떨었다.

“크흐흑. 흐아아. 크흑.”

마치 사나운 사자가 포효하듯이 울부짖는 그. 그와 함께 내 꽃잎 속에서는 오빠의 남성이 거세게 꿈틀대는가 싶더니 이윽고 뜨거운 정액을 거세게 쏟아내고 있었다. 내 꽃잎 속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은 한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두 번, 세 번, 네 번. 내 꽃잎 속에 뿜어진 오빠의 정액은 내 꽃잎을 모두 채우고도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꽃잎에 오빠의 남성이 코르코 마개처럼 단단히 박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꽃잎의 바깥쪽으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응. 미치겠어. 하아.”

내 꽃잎에서 뿜어져 나온 오빠의 정액은 두 사람의 음모에 허영게 풀처럼 흩어져 뿌려졌고 아래쪽으로 뿜어져 나온 정액은 내 엉덩이로 흘러 내렸다. 그와 함께 오빠도 내 몸 위로 떨어져 내렸다. 언제나처럼의 일시정지. 우리는 그렇게 태국에서의 두 번째 밤을 밝히고 있었다. 참고로 말하면 그 이후로 두 번이나 더 하고 나서야 잠에 빠질 수 있었다. 아무래도 마사지를 받고 나니 몸이 제대로 풀려서 그런 것 아닐까 싶긴 하다. 이런 식이라면 내일도 마사지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이번엔 끝까지 태국인 마사지사의 손길에 몸을 맡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빠가 허락해줄까.

NUDE STORY

JUNE 2022

통권 101호

발행일/2022년 5월 15일

E-mail

kmdkee@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EDITOR IN CHIEF & PUBLISHER

정은숙 Eunsuk Jeong

출판국 PUBLISHING DIVISION

국장/고기동 Director/Ki Dong Go

편집 EDITORIAL

편집장/김철호 Chief Editor/Cheol Ho Kim

미술 ART

팀장/이수정 Art Director/Su Jeong Lee

사진 PHOTOGRAPH

포토그래퍼/이상용 Photographer/Sang Yong Lee

영업 SALES

국장/고기동 Director/Ki Dong Go

업무국 BUSINESS DIVISION

차장/이정현 Chief/Jung Hyun Lee

매체 및 관리 MEDIA & ADMINISTRATION

과장/소유미 Manager/Yu Mi So

광고 AD.SALES

과장/박현철 Manager/Hyeon Cheol Park

인쇄인

유니크기획인쇄

NUDE STORY

멀티컴퍼니

●「누드스토리」는 성인용 월간지로서 청소년을 비롯한 18세 미만자에게 판매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드스토리」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누드스토리」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견해를 나타냅니다. ●「누드스토리」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당사의 서면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도 무단전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거나 불법 복제, 복사시에는 법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등록번호/서대문, 라-00101호 ●등록일/1995년 7월 15일 ●발행/멀티컴퍼니 ●주소/(우)03615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39(홍은동 214호) ●전화/(02)3472-1950, FAX/(02)379-4535

민한나 임팩트화보집

MIN HAN NA

1st 단독집



도서명 : 민한나 임팩트화보집
출판사 : 임팩트크루
저자 : 임팩트크루
크기 : 225×265
쪽수 : 152page
출간일 : 2019년 11월 1일
바코드 : 979-11-967978-1-2
대상/타겟 : 20-40대 남성
정가 28,000원

온라인서점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인터넷교보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정혜율 임팩트화보집



도서명 : 정혜율 임팩트화보집
출판사 : 임팩트크루
저자 : 임팩트크루
크기 : 225×265
쪽수 : 168page
출간일 : 2019년 8월 5일
바코드 : 979-11-964068-1-3
대상/타겟 : 20-40대 남성

정가 28,000원

온라인서점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인터넷교보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중